

## 남가주 교계 “동성애 조장하는 ACR 99 반대하자!”



남가주 기독교 지도자들은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남가주와 북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지역 교회가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설교와 상담, 전환 치료 등을 금지하려는 발의안 ACR 99가 캘리포니아 주 하원에서 이미 통과된 데 이어 상원에서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ACR 99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상담, 교육 전환 치료(동성애자를 이성애자로 전환시키는 치료)등의 활동을 금지하려는 발의안으로 상원에서 통과되면 모든 동성애 반대 운동이 법적 제재를 받고, 목회자

가 예배나 상담 중 동성애를 반대하는 견해를 밝히지 못하게 된다.

특히 목회자나 상담가 종교인 및 교육자들이 성경을 따라 ‘동성애는 죄, 또는 비정상 혹은 잘못’이라고 설교하거나, 설득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면 법적 제재를 받고, 목회자의 경우 감옥에 가거나 고액의 벌금형을 받을 수도 있도록 건의하고 있다.

이에 남가주 기독교 지도자들은

지난 24일 미주 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ACR 99의 심각성을 알리고, 캘리포니아 주 상원에서 부결시키기 위한 설명회와 서명 운동을 가졌다.

남가주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날 서명 운동 발족식과 더불어 ACR 99 발의안 저지를 위한 온라인 서명 운동에 남가주와 북가주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전 지역 교회가 동참할 것을 권고했다.

이날 모인 교계 지도자들은 ACR 99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모든 교회와 단체의 목소리를 억누르는 법적 구속력을 갖고, 캘리포니아 주를 시작으로 미국 전 지역과 전 세계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발의안이 미국과 캘리포니아에서 동성애 확산을 위한 디딤돌이 되지 않도록, 교계와 성도들이 반대 서명 운동을 전개해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발족식에서 “하나님이 법이다”(레위기 20:12-14)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한 신승훈 목사는 “ACR 99는 하나님께서 죄라고하신 성경 말씀을 대적하고, 다음 세대가 진리를 떠나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도록 이끈다”며 “적극적인 반대 운동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럼 없는 내일을 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3면에 계속]

##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 제 21회 총회, 총회장으로 민승기 목사 내정

미주한인기독교총연합회(이하 미기총) 21회 정기총회가 오는 8월 19일(월) 오후 12시부터 21일(수) 오후 2시까지 남가주 오렌지 카운티 갈보리새생명교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총회는 첫날 개회예배 및 임원회에 이어 둘째날에는 정기총회를 통해 신임위원을 선출하게 된다. 신임 회장으로는 OC 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한 민승기 목사가 취임할 예정이다.

민승기 목사는 “이제 장년이 된 미기총은 설립 목적인 교회일치와

화합, 봉사와 연합 및 한인이민교회 비전과 정체성 확립, 그리고 다음 세대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더욱 힘쓸 것”이라며 “미주 한인 이민교회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며 함께 역량을 모아 연합 사업을 더욱 증진시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민승기 목사는 이어 “미기총은 미주 지역의 교회 협의체 대표와 각 교단대표, 증경 교단장 등의 회원으로 참여한 단체”라며 “한국 개신교 교단을 대표하는 미주 한인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총회에서는 △ 통일선교전략 △ 난민 선교 전략(무슬림 선교) △ 북미 목회자 양성 및 북미 신학 현황 등 목회자들에게 유익한 세미나와 더불어 통일 기도회도 함께 진행되며, 세계기독교총연합회 최낙신 목사와 사무총장 신광수 목사, 한국교회연합 회장 권태진 목사와 최귀수 사무총장, 일본협의회 대표 이상렬 목사와 북미 각 주에서 1대 증경회장인 박희소 목사를 비롯한 증경 회장단이 참석할 예정이다.

그동안 남가주 지역에서는 故 심

학구 목사(3대), 한기형 목사(10대), 송정명 목사(13대), 한기홍 목사(16대) 등이 미기총 대표회장으로 섬겼으며, 민승기 목사가 21대 총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라 남가주에서 다시 한 번 총회장을 배출하게 된다.

한편 미주 4,500여 한인교회를 대표하는 미기총은 미주 한인교회의 일치, 화합, 선교, 봉사, 연합 사역을 위해 21년 전에 태동해 지금까지 미주 50개 주에 있는 한인교회들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성장해 왔다.



김동욱 기자

갈보리새생명교회 민승기 목사

**교수직, 안정적인 직업?**  
- 한국어 잘하시는 분들 도전하세요

**매월 첫째주 토요일 개강**

**연방정부 한국어교사(CIA)**  
한국어 법정통역사, 번역사  
주말반 토, 일 세미나

T:(213)999-4379 info@wpaus.com  
3407 W 6th st, #614 LA/LDA:2018047569

**그린카피어 리스 & 렌트**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칼라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할인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FATHER'S TABLE CHURCH**  
내 집은 만민이 금식 기도하는 집입니다

- 주일예배 : 오전 6:00 / 11:00
- 새벽예배 : 월~토 오전 5:30
- 수요일예배 : 오후 5:30
- 금요일예배 : 오후 5:30
- 찬양 & 부흥예배 : 월/화/목/토 오후 5:30

3210 W. Olympic Blvd., CA, LA 90006  
TEL: (213)364-7289, (213)605-1983

**LA 지역 제1차**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설교에 변화를 원하십니까?**  
성경 본문의 핵심인 원포인트로 흘러가는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설교를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기존의 설교세미나와는 근본적으로 차별화 되는, 본문에서 핵심이 되는 엑시트 한 영어리틀을 캐내어 수준 높고 참신하고 감동적이고 드라마틱한 설교의 원고를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비결을 공개하는 소중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미국에서 신구약을 전공(Th.M)하고 남아공에서 수사기법(효과적인 전달)을 전공(Ph.D)하고,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프레임>을 독창적으로 개발한 신성욱 교수의 놓칠 수 없는 독보적인 세미나에 설교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이동원 목사(지구촌 교회 원로)의 추천사 - “교수님은 보기 드문 설교학자입니다. 이론과 실재를 겸비한 이분에게는 총합살인의 유머와 말씀의 깊이가 겸비되어 있습니다. 포스트모던 시대에 한국교단의 문제를 극복할 설교의 대안을 찾는 후학들에게 신 교수님의 설교세미나를 강추합니다.”

**일시** 2019년 7월 29일(월)~30일(화) 오전 9시~오후 5시 30분  
**장소** 가든스위트 호텔 (Garden Suite Hotel)  
(681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383-0000)

**강사** 신성욱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설교학)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 연구소 대표  
• University of Pretoria (설교학 Ph.D)  
• Calvin Theological Seminary (신약학 Th.M)  
•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구약학 Th.M 수석)  
• 총신대 신학대학원 (M.Div. Equiv.)  
• 계명대 영어영문학 (B.A)  
• 『이동원 목사의 설교 세계』 (두란노, 2014)  
• 『목사님, 설교 회고하세요』 (생명의말씀사, 2011)  
• 『설교의 삼중주』 (킹덤북스, 2019) 등 저서 및 역서 다수  
• 국내 및 해외 설교세미나 다수 인도

**참가비** \$100(사전등록 \$90)  
(이틀간 호텔식 점심식사 제공, 강의안 포함)

**등록방법** 당일 강의 장소에서 등록가능

**대상** 신학생, 목회자, 사모, 선교사

**주최** Kairos Ministry Academy

**후원**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총장: 정홍호 교수), 기독일보

**문의** 818-200-3807 (간사 Jay Lee)

강의 내용		〈첫째 날〉
시간	내용	
9:00~10:3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이론과 실제1	
10:40~12:1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이론과 실제2	
12:10~1:10	점심식사	
1:10~2:4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이론과 실제3	
2:50~4:2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실제 샘플 Frame1(민 13, 14장)	
4:30~6:00	<원포인트의 드라마틱한 강해설교>의 실제 샘플 Frame2(눅 19:1-10)	

강의 내용		〈둘째 날〉
시간	내용	
9:00~10:30	인문교전과 설교1	
10:40~12:10	인문교전과 설교2	
12:10~1:10	점심식사	
1:10~2:40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작성을 위한 전략1	
2:50~4:20	성경적이고 효과적인 설교작성을 위한 전략2	
4:30~6:00	김현아 전도사(총신신대원 2008년 설교대회 대상 수상) 설교분석 및 비평	



# “같은 뜻,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 섬기겠습니다!”

## 남가주 베엘교회 임직감사예배 드리고 일꾼 세워



남가주 베엘교회 임직감사예배.

남가주 베엘교회(담임 오병익 목사)는 지난 21일, 임직감사예배를 드리고 권사 및 명예권사 6명, 안수집사 5명 등 총 11명의 직분자를 세웠다.

미주예성 지방회 임원들과 축하객들이 본당을 가득 채운 임직감사예배에서 오병익 목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일꾼을 세우게 하셔서 감사하다”며 “마지막 때에 교회의 본질인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오병익 목사의 인도로 김영일 목사(섬김과 나눔교회 담임, 지방회 증경회장)의 대표기도, 양홍규 목사(지방회 서기, 곳프렌즈교회 담임)의 성경봉독 후에

남가주베엘교회 베엘성가대가 찬양을 불렀다. 이어 찬 강 목사(지방회 부회장, 남가주 새언약교회 담임)가 사도행행 13장 1-3절을 본문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강 목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안디옥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했다”면서 “이 일을 위해서 복음으로 하나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안디옥교회를 쫓아가라”고 권면했다.

오병익 목사의 집례로 이어진 임직식은 임직자 소개와 서약, 안수기도, 악수례, 선포 순으로 진행됐다. 또 김유경 찬양사역자가 축가

로 자리를 빛냈으며 박용덕 목사(미주예성 총회장, 남가주 빛내리교회 담임)와 김 제임스 목사(올리브 라이프교회 담임)가 각각 임직자에게 축사와 권면했다. 이어 교회가 임직자에게, 임직자가 교회와 오병익 담임목사에게 기념품을 전달했다.

임직자를 대표해서 답사를 전한 김지현 집사는 “같은 뜻과, 같은 마음, 같은 비전으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섬기며, 영혼을 구하는 전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진 장로의 광고 후에 강태광 목사(월드쉐어 USA 대표)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 월드쉐어 USA 전용대 목사 초청 찬양 간증 집회 성황

국제 구호 NGO단체인 월드쉐어 USA(대표 강태광 목사) 홍보대사인 전용대 목사는 지난 17일과 19일, 각각 LA 예은교회(담임 박건섭 목사)와 LA 평화교회(담임 김은목 목사)에서 찬양 간증 집회를 개최했다.

한국 1세대 복음성가 사역자인 전용대 목사는 ‘낮은 해처럼’, ‘주를 처음 만난 날’, ‘주여 이 죄인이’, ‘꼭바로 보고 싶어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등 40년 찬양 사역 동안 30개 앨범을 발표하고, 1만 번 집회를 인도할 정도로 한국 복음성가 역사에서 손에 꼽을 만한 사역자이다.

전용대 목사가 월드쉐어 USA 홍보대사를 맡은 것은 월드쉐어 한국 본부의 초창기 시절 함께 하였던 경험과 월드쉐어 USA 대표인 강태광 목사와의 관계때문이다.

전용대 목사는 월드쉐어 설립자인 권태일 목사의 초창기 활동을 힘써 도왔고 건전한 활동을 보고 들었기 때문이다. 최근 함께 동역한 경험이 있는 강태광 목사가 월드쉐어 USA를 섬기게 되면서 홍보대사로 함께 일하게 되었다.

전용대 목사가 1980년 복음성가 1집 ‘탕자처럼’ 발매 이후 82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등 그가 발표한 앨범의 모든 곡들을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각자의 눈물 어린 신앙 고백을 표현할 수 있었다.

전용대 목사는 젊은 시절, 장래가 촉망되는 트로트 가수였지만 갑작스럽게 닳진 성인 소아마비로 돌연 목발에 의존한 삶을 시작해야 했다. 뛰어난 운동 신경과 건장한 몸을 가졌던 그는 한 순간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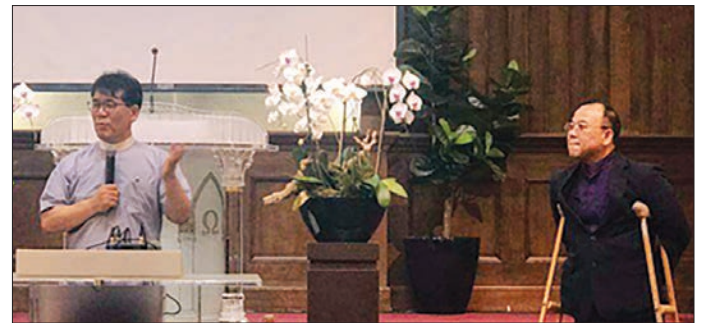
목발을 짚게 되면서 심한 방황과 말할 수 없는 좌절로 신음했다. 그 뿐 아니라 다량의 수면제를 복용하는 등 4차례나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살 소망이 없었다. 그런 그가 절망에서 일어나 지금까지 행복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다.

“신앙생활에서 위험한 것 중의 하나가 ‘우리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히 생각하지만 매 순간 호흡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진정 세상을 이기는 자이며, 세상의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기뻐하며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지금도 불편한 몸을 목발에 의지한 채, 전 세계를 돌며 찬양집회를 인도하는 전용대 목사는 사역 초기엔 장애인이란 이유로 차별도 받고, 그런 자신의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다. 그러나 전용대 목사는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일으켜준 예수님을 만난 후 ‘고난은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고 쉽지 않은 사역을 즐겁게 이어가고 있고, 오는 9월 찬양 사역 40주년을 기념하는 콘서트를 준비 중이다.

한편 월드쉐어 USA는 전용대 목사와 더불어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의 강훈 목사 등 찬양 사역자들을 홍보대사로 초청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고 현재는 아이티 빈민촌 투찌에 살리기 운동으로 투찌에 주민들이 만든 팔찌를 판매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LA 예은교회 찬양 간증 집회에서 전용대 목사를 소개하는 월드쉐어 USA 대표 강태광 목사

# 한기형 목사 LA 한인타운에 하늘문교회 창립



하늘문교회 창립감사예배에서 설교하는 한기형 목사

감리교 미주연회 감독을 역임하고 현재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한기형 목사(74)가 지

난 21일, LA 한인타운에 하늘문교회를 창립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날 “하늘문 성도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한기형 목사는 “하늘문 교회가 우리의 생명을 걸어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하길 바란다”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밝히고 이웃을 이롭게 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한 목사는 이어 “하늘문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다음 세대를 책임 질 일꾼을 세우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며 “교회가 시작하는 자리

가 미미하고 보잘것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하늘문교회는 “한기형 목사님은 나성동산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하늘 문을 향해 33년을 달려왔고, 그 하늘 문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 낙오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달려 온 신실한 성도님들이 모였다”며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고, 이웃을 섬기며, 일꾼을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동욱 기자

**오바마케어 승인 프로그램**

**Christian Healthcare Ministries**

**크리스천 헬스케어**

\* 연중 아무때나 가입이 가능.  
\* 골드 프로그램은 본인부담금(\$500)을 지불하지 않음

미주최대 의료협동조합 [www.chman.org](http://www.chman.org) 714.738.1234

ACCREDITED CHARITY [bbb.org](http://bbb.org)

[www.saseducation.weebly.com](http://www.saseducation.weebly.com)

**실무 11년의 노하우**

**SAS 인가컨설팅, Inc**

대표 Paul Kim, Ph. D  
Tel : (213)531-7215, (909)993-3028  
16992 Rudeen Lane, Fontana, CA 92336

- 직업전문대학인가(ACCSC)
- 신학교 인가(TRACS, ATS)
- BPPE 신규 및 재승인
- 어학원/온라인 프로그램

[summitus37@gmail.com](mailto:summitus37@gmail.com)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의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http://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b>귀국이사</b>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귀국자동차 운송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새 물품 구입 시 Sales tax return 혜택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 무료 창고 보관 2개월 서비스
<b>시내이사</b>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사무실, 공장 이사	- 싸애틀, 달라스, 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 창고 보관 가능	
<b>자동차운송</b>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b>해외이사</b>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초 저가 차량 운송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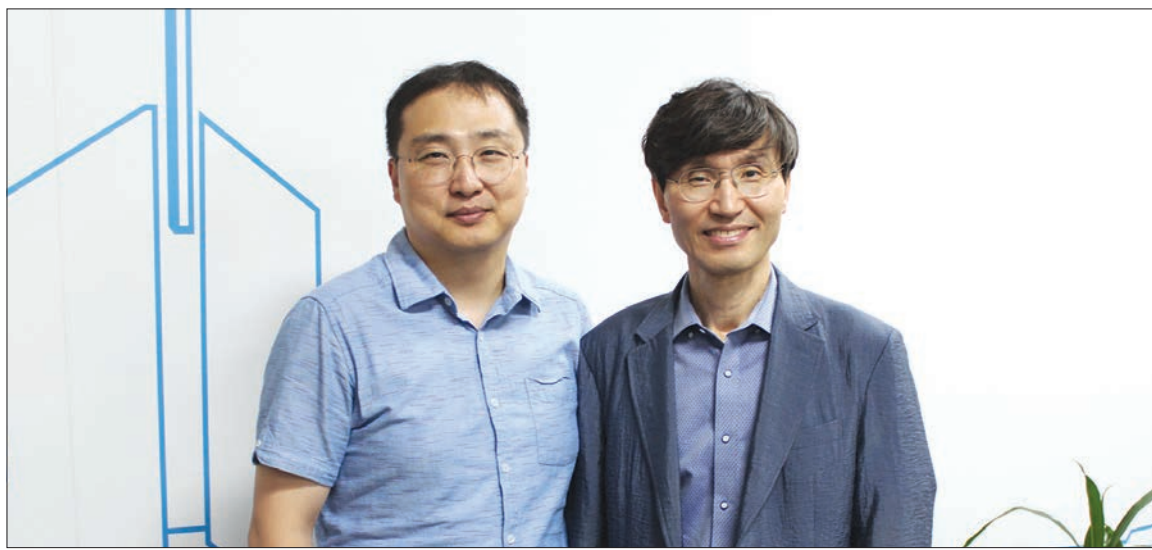
**문의 1-877-580-2424 시애틀 (310)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mailto: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 이필찬 교수 “종말, 예수님 오심으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도래”



토랜스장로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산책”을 진행한 이필찬 교수(우)와 토랜스장로교회 고창현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담임 고창현 목사)는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요한계시록 연구소 대표 이필찬 교수를 초청해 ‘요한계시록 산책’을 개최하고, 요한계시록의 올바른 이해와 적용에 대해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필찬 교수는 “일반적으로 ‘요한계시록은 종말에 대한 예언서로 오직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 이해하기 쉬운데,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예언뿐 아니라, 과거와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현재 진행형의 고난도 담고 있다”며 “종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출발인 창조를 기억하면서, 창조의 목적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말은 단순한 세상의 끝이 아니며, 종말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종말과 재림 올바른 이해 필요”

### 종말과 재림 올바른 이해 필요

도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의 사이

가 종말의 시대이며, 종말의 시대가 창조가 회복되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뜻이 성취되고 있음을 뜻합니다. 종말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된 구원의 역사이며,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속한 자들을 향한 심판을 전하는 것입니다.”

### 요한계시록이 가르치는 것은 복음과 순종

이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일어날 사건이라고 믿어왔으며, 지금도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재림의 징조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재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종말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며 “요한계시록은 단순히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라, 그 당시 로마 황제에게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섬기

라는 메시지와 같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우상과 세상을 떠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죽음 후 경험하는 천국만을 바라보며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고난과 핍박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며,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그는 또 요한계시록 12장에 등장하는 미가엘과 용의 전쟁에서 하늘로부터 쫓겨난 사단이 성도를 참소할 수 없음을 설명하며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에 잠시 속을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할 수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승리로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더불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과 자유를 얻게 됐다”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1면 “남가주 교계, 동성에 조장하는 ACR99...” 이어]

## 동성에 반대 설교금지 결의안(ACR99) 반대 설명회 및 서명식 가져 캘리포니아 주 하원 통과 이어 상원 통과 대기 중



ACR 99의 반대 서명식에서 남가주 교계 지도자들이 서명하고 있다.

ACR 99 반대 서명 운동을 이끄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송정명 목사는 “이 ACR 99를 지지하지 못하면 앞으로 교회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다”며 “캘리포니아 지역 목회자들과 교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반대를 표명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서명 운동을 주도하는 JAMA 대표 강순영 목사는 “이번에 이 결의안을 지지하지 못하면 교회, 목회자 그리고 학부형들이 동성애에 대한 자신의 반대 의견을 밝히지 못하고 되고, 최종 법안화 되면 동성애 반대 설교 및 상담을 하게 될 경우, 구속 및 구금 그리고 벌금형을 받는 어려움에 처하게 될 수 있

다”며 “교회와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ACR 99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설명한 TVNext 공동대표 새라 김 사모는 “ACR 99은 북가주 산호세 동성애자 하원의원 이반 로(Evan Low)가 발의해 교회와 신앙의 자유를 위협했던 AB2943의 연장선으로, 통과가 되면 종교의 자유와 헌법 제1조 항인 개인과 신앙의 자유를 크게 위협하고, 교역자들의 설교, 상담, 그리고 교회 서점에서 판매하는 책까지 통제를 받게 된다”면서 “하나님이 죄라고 하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설교자나 일반인까지도 감옥에 갈 수 있는 기독교 탄압의 문을 여

는 법안이 될 것”이라며 반대 서명을 촉구했다.

또 TVNext 공동대표인 김태오 목사는 “ACR 99은 교회의 침묵을 강요하고 진리를 말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설교나 상담, 전환 치료 등을 통해 동성애자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키는 인권 말살적인 움직임”이라며 “우리가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서명 하나, 지역 의원에 보내는 코멘트 하나, 지역 공청회에서 표명하는 반대 의사 하나가 모두 계수되기 때문에, 캘리포니아 교계와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족식에 참석한 교계 지도자들은 “모든 교회 성도가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줄 길이라며, 온라인 참여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 이름과 주소, 이메일 주소 등을 일괄적으로 받아, 교회에서 반대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온라인 서명은 신분, 나이, 직업, 영주권자, 시민권자 혹은 그 외의 누구라도 신분에 상관없이 참여할 수 있으며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는다. 김동욱 기자

## 나성순복음교회, 박종호 장로 “초심” 콘서트 연다

춤추는 테너, 한국의 파바로티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가진 CCM 가수 박종호 장로가 오는 7월 31일(수) 오후 7시 30분, 나성순복음교회(담임 진유철 목사)에서 선교사 후원을 위한 “초심” 콘서트를 개최한다.

박 장로는 한국 CCM의 산역사라 할 수 있다. 그는 남몰래 한국 예수전도단 파송 해외선교사들의 건강검진과 선교 사역을 후원하던 중, 2016년 본인이 간경화와 간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그동안 자신이 후원했던 선교사들과 전 세계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로 현재는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사역에 나서고 있다. 그렇기에 박 장로는 ‘다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의미에서 이번 콘서트의 주제는 “초심(初心)”이다.

그의 이번 초심 콘서트는 아름다운 찬양을 비롯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기도의 능력, 가족의 소중함 등을 담은 간증으로 구성된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집회에서는 투병 중인 선



CCM 가수 박종호 장로

교사들을 위한 헌금 시간이 있을 예정이며, 집회 후 음반 판매 수익은 전액 선교사들의 수술비, 치료비, 건강검진 비용으로 사용된다.

나성순복음교회는 “많은 분이 참석해 은혜와 감동을 나누기 바란다”면서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영육 간에 고통에 처해 있는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Dietary Supplement**

# 대마헴프함초환

**대마 추출 건강기능식품**  
SUPERFOOD PROMISE

**THC Free**  
환각기능 없음

**신이 내린 항암식품**  
**대마 함초환**  
Cannabinoids  
대마추출물 Hemp Oil

※ 많은 질병에 사용되는 유망한 천연소재입니다.  
※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칸나비노이드를 자극해 암을 유발하는 암, 뇌전증 치료와 노화방지에 효과가 있으며 특히 GABA는 막암효과가 강력 추천하는 항암 식품입니다.  
※ 대마식물에서 추출된 CBD는 중독성이 없으며 환각성을 유발하는 THC성분이 없습니다.  
※ 만성통증, 불안 등 다양한 질병치료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항염증효과로 건강과 웰빙세계에서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 대마씨 열매는 미국 타임지에서 슈퍼푸드 선정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지맥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암 전이를 예방해주며  
혈관을 튼튼하게,  
면역력을 증강시켜줍니다.

예고 없이 오는  
혈관 질환, 뇌졸중, 중풍,  
심장병, 지맥 예방,  
신경정신질환, 면역질환  
뇌전증에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250+tax

2 TIMES A DAY (15-20 PILLS)  
TOTAL (1800 PILLS)

※ 각종 항암 식품으로서 최고의 효과  
※ 당뇨 혈당수치 정상화에 크게 도움  
※ 심장마비, 뇌졸중에 적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내리는데 도움  
※ 대장에 도달해 나트륨을 배출해 내기 때문에 **속변 제거 및 대장암 치료 예방**에 효과적  
※ 헴프함초에 함유된 베타인(betaain)성분이 **혈관 청소**를 도움

함초는 Baja California 유네스코 지정 청정지역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제품은 질병을 병리학적으로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며 건강보조식품입니다.

조규면 박사 Ph.D.  
한국중입자암치료센터  
Korea Particle Therapy Cancer Center  
Chairman & CEO / 헬스케어 제품 개발자

MANUFACTURED IN THE USA



<선교부흥을 회복하라 -121회>

### 선교 부흥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주일 예배 때 필자의 교회에서는 터키로 가는 한 청년 가정의 장기 선교사 파송이 있었다. 2주 전에 팔레스타인 SM(대학생선교사) 파송에 연이은 파송이라 교회는 더욱 감사하는 예배를 드렸다. 한 선교사 가정이 파송을 받기까지 그들이 받은 훈련들, 준비한 기간들, 하나님의 섭리와 가정의 이투심 등 하나하나 생각할 때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다.



이상훈 목사  
주비전교회 담임

몇 주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곳 중 하나인 팔레스타인으로 SM 떠나는 이제 대학교 2년생 갓 20살이 되는 L 형제를 파송하면서도 이제 그곳에서 만나야 할 사람들, 새롭게 사귀게 될 친구들을 미리 축복하며 어린 우리 자녀들을 타지로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슴이 멍했었다. 필자는 2년 전, 3년 전 차례로 두 딸을 SM 파송을 보낼 때도 어느새 저리 커서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리며 감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던 때가 생각난다. 이렇게 우리의 선교사들이 사랑받는 가족들을 남기고, 다정했던 친구들과 교우들을 남기고 미지의 세계로 개척자가 되어 가는 것이다. 그 길은 하나님의 꿈의 실현이며 하나님 주시는 은총 중에 가장 큰 은총의 길이다. 우리 선교 가장 큰 은총의 길이다. 우리 선교 회에서는 자녀들도 어린 선교사로서 파송을 받는다. 아무것도 모르고 부모의 결정에 이끌려 가는 듯하지만 아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는 것임을 믿는다. 소위 MK(선교사 자녀들) 군단이라 말한다. 그들은 선교지에 가서 곧바로 현장 학습으로 들어간다. 친구를 사귀고 그들을 집으로 초대하고 한 걸음씩 더 나아가 예배의 장소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게 MK들은 부모와 함께 동역자로 세움 받는다. 현재 필자의 교회에는 시니어(50대 이상) 선교사로 나갈 가정 등 2가정이 파송을 준비하고 있다.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 구령의 열정으로 파송받은 그리고 파송받을 이들이 선교부흥의 주역이 되리라 굳게 믿는다.

필자는 선교사 파송 예배가 이루어질 때마다 교회의 교회 됨을 느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순종의 마음으로 열방에 교회를 개척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길 떠나는 형제 자매들을 파송하며 항상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예수님께서 70인의 전도자들을 따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아!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어린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눅10:2-3)을 기억하며 필자의 마음도 저 불모지의 땅으로 가는 형제자매들의 모습에 마음에 아름이 있다. 그들의 앞길에 필시 난관이 있을 것이고, 혹독한 냉대와 질시, 고독과 눈물이 교차하는 험난한 생활일 것을 예감하면서도 또 감사와 기쁨도 같이 어우러지는 시간이 파송 예배 시간인 것 같다.

•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태광 목사

### 행복을 위해 감사의 역량을 높여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토크쇼 '오프라 윈프리 쇼'의 진행자 오프라 윈프리는 굴곡진 삶을 극복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알려진 것처럼 그녀에게는 큰 아픔이 있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에게 태어나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열네 살에 삼촌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14세 어린 나이에 임신하고 미혼모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게 되는데 그 충격으로 가슴을 해서 세상에 뛰어나는 인생을 삽니다. 그 시절 그녀는 마약과 알코올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 그녀는 살고자 하는 의욕이 전혀 없었고 107kg의 몸매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 USA

그랬던 그녀가 새로운 인생을 삽니다. 그녀는 현재 전 세계 1억 4천만의 시청자를 울리고 웃기는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런 변화의 밑바탕이 된 것이 감사일기였습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바쁜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그녀는 수십 년째 하루도 빼먹지 않고 감사일기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감사일기가 그녀 행복의 비밀입니다.

전달물질들이 바뀐 것입니다. 감사함을 느끼는 순간 사랑과 공감 같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는 뇌 좌측의 전두피질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는 "생리학적으로 감사는 강력한 스트레스 완화제로서 분노나 우울, 후회, 슬픔 등 불편한 감정들을 훨씬 덜 느끼게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감사일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었습니다. UC데이비스의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몬스는 "감사의 과학"이란 책에서 감사일기 효과에 대한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에몬스는 12살에서 80살 사이의 사람들을 상대로 한 그룹에는 감사 일기를 매일 쓰게 하고, 다른 그룹에는 그냥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한 달 후 중대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행복지수가 높게 나타났고, 수면, 일, 운동 등에서 더 좋은 성과를 냈습니다.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대학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클로우는 "잠깐 멈춰 서서 삶의 감사거리를 생각해보는 순간 감정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감사를 느끼고 고백하는 순간 마치 승리에 도취된 감정을 느낄 때와 유사한 감정의 선순환을 만든다.'고 주장합니다.

미국 시카고에서 심리클리닉을 운영하는 심리학자이자인 마르틴 트로이아니는 환자들과 상담을 하면서 불만을 제한하고 감사함을 더 표현하게 하면서 심리치료를 효과를 봤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는 "감사일기는 중요한 치유의 도구가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저 감사했을 뿐인데 뇌의 화학구조와 호르몬이 변하고 신경

니 부이치치는 1982년 호주에서 팔다리가 없는 기형으로 출생 하였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는 세 번씩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고통스런 그

의 삶을 대변합니다. 그런데 15살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마음과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현재는 '희망의 아이콘'으로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인 강사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는 팔다리가 없는 조건 속에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이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바드 대학교에서 행복학 교수인 탈벤 사하르 박사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엔돌핀은 암을 치료하고 통증을 해소하는데 큰 효과가 있다. 엔돌핀은 기쁘고 즐거울 때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한편 엔돌핀보다 4000배의 효과가 있다는 다이돌핀은 '행복 호르몬'이다.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감동을 받거나 감사가 가득 할 때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강력한 호르몬으로 행복한 삶을 살수가 있습니다.

서양 속담은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행의 문으로 나간다!'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겪는 모든 불행은 불행과 불만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어진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역경을 이겨내고 행복을 만들어 가지지만, 아무리 좋은 여건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는 사람은 불행한 인생을 사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라고 말했고, 인도의 시성 타고르르는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라고 했습니다.

행복하려면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한 만큼 행복해집니다. 감사를 연습해야 합니다. 감사의 역량을 키워 나가는 것이 행복도를 높여 가는 비결입니다. 범사에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 가을학기 개강



대표 주해홍 목사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대표 주해홍 목사)이 8월부터 가을학기를 개강한다. 가을학기는 16주 동안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 LA 비전교회, OC 동안 디사이플 교회에서 진행된다. LA에서는 8월 6일부터 11월 19

일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12시 30분 16주동안 동양선교교회 비전센터(424 N. Western Ave. LA)에서 남승우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또 같은 기간 오후 7시~9시 30분까지는 LA비전교회(520 S. Lafayette Park Pl. #200 LA)에서 정선희 전도사가 강사로 나선다. OC는 8월 8일 ~11월 21일까지 오전 10시~12시30분, 오후 7시~9시30분까지 매주 목요일 16주간

동안디사이플 교회(720 N. Valley St. Suite F Anaheim)에서 김민섭 목사가 강의한다. 주해홍 목사는 "에스라 성경통독 사역원은 성경을 종말론적 구속사,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읽음으로 하나님이 주어진 삶을 살도록 인도하게 된다"고 소개했다. 등록비는 \$150달러이며 재수강자는 \$120달러다. 교재비는 별도. 문의: 714-287-2854 우장훈 목사

### 기독교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장재호, 박기호, 방지각, 김중업,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 이민규 이 사장 : 존 킴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혈당수치가 내려가면 행복지수가 올라갑니다

식후 혈당 억제를 도와 혈당 걱정 없는 인생, 이제 프로지로 활짝 웃으세요.



## 프로지

### PRO-Z

혈당수치 조절 및 혈당관리의 시작 나이와 상관없이 있으며 빠를수록 좋습니다.

일본의 전국 약사 1,000명에게 당뇨병 신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가사하라 도모코 약사의 저서 "당뇨병, 약을 버리고 자연으로 끝내라"에서 미네랄의 하나인 '아연'에 당뇨병 치료의 열쇠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타민이나 미네랄이 부족해서 고혈당이 되었다면 당뇨약을 먹거나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게 당연하다.

인슐린은 혈액 중의 포도당을 세포에 들여보내서 높아진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하는 유일한 호르몬이다. 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아연이 꼭 필요하다. 아연이 부족하면 혈당 조절 기능이 나빠지고, 합병증의 위험성이 커진다.

### 임상실험이 입증하는 프로지의 효능!

40년간 Zinc Metabolism을 연구해온 송문기박사는 아연이 근육세포의 당대사와 체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반응도에 깊게 관여 되는 사실에 주목하여, 아연에 CHP를 첨가한 신합성 물질(CHP Plus Zinc) 프로지(PRO-Z)를 개발했습니다. 정부 연방 병원인 US VA Hospital에서 47명의 당뇨환자를 대상으로 12주동안 프로지(PRO-Z)를 복용한 결과 당화혈색소(HbA1c)가 평균 22%감소, 70% 환자에서 혈당 수치가 29%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Source: Metabolism, Vol 47, No 1(January), 1998: pp 39-43 미국특허 # 5,411,748 and #5,997,908

### 프로지의 특별한 아연(Zn)의 흡수력과 지속력

송문기 박사의 세계적 특허 Cyclo-z 관련 기술이 적용되어 귀하의 체내 아연(Zn) 흡수력과 지속력이 혁신적으로 증가됩니다. 이제 활발한 아연대사(Zinc Metabolism)가 가져다 주는 변화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아시나요?

당뇨 치료, 당뇨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첫걸음

## 당화혈색소(HbA1c) 1%

## 줄이기에 시작됩니다

혈당수치를 조절한다고 치료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화혈색소를 1%만 줄어도

43% (하지절단) 37% (미세혈관합병증) 등이 줄어듭니다

## 당화혈색소(HbA1c) 조절목표는 6.5%

송문기 박사, 그는 누구인가?  
 • 국가대표 제1과학자 송문기 박사  
 • 40년간 당뇨병, 비만 그리고 난치병 연구  
 • UCLA에서 생화학 분야 연구교수  
 • 미 연방사립대연방 병원 개발센터 수석 연구원

1병 \$69+Tax  
3병 \$180+Tax  
6병 \$350+Tax

핵심은 아연의 흡수 (C-Z 특허) 및 아연의 흡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

문의전화 213.434.1170  
3020 Wilshire Blvd, #160, LA, CA 9001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



# 남에게 전한 후 버림이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9:19-2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세상 지식은 전달하는 것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영혼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로 판가름 나기 때문에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지 않고서는 다른 영혼들을 지도할 자격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3:1-2에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고 있으며, 구원을 얻었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직도 그리스도 밖에 있고 진리의 도리를 오해하고 있으며, 믿음 그 자체가 인위적이고 인본주의적 경향 때문에 영적인 구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가짜 신자라면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킬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없습니다. 이것은 죽은 나무에서 열매를 딸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자기 양심의 가책이 정면으로 부딪힐 때 발악을 합니다. 회개하거나 뒤우쳐 반성할 줄 모르고 오히려 양심의 가책을 묵살시켜 버립니다.

“너희는 선생 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것이 거짓교훈이 되었을 때, 그 가르침에 영적인 소망의 기대를 걸고 따랐던 사람들을 모두 지옥으로 끌어 넣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도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향방이 결정되는 이 악한 세대에 참 목자를 만나야 한다는 것은 신앙인에게 있어 절대적인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 아이들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는 디모데후서 3:7의 말씀처럼 되어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교사의 책임일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율법 의례적인 신앙이 의식화되어졌기 때문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제사장, 장로라는 사람들의 신앙은 극히 외형으로 나타내 보이려는 형식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르치기는 좋아해서 이론적으로 그럴싸하게 떠들어대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해 죄 사함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자들이 천국 안내자 역할을 도맡아하고 있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엄청난 저주를 받았던 것입니다(마23장).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말만하고 행치 아니하니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

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도바울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진리를 깨닫고 영적인 선교사의 사명을 받았을 때 그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갈5:24)”는 말씀처럼 자기를 버리고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대 걸고 맡기신 직분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기고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주님의 것으로만 존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없어서는 안 될 요긴한 지체로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도바울은 선교사로 전도하려 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된것은 겉으로는 그들과 어울리는 듯 했지만 그들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구원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본문 20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했습니다.

순전히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상대방이 처해있는 현실에 자원해서 동참함으로 영적인 소망을 일깨워 구원해 주기 위해 몸부림쳤다는 말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주고,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와 같이 되어주고,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예수님이 택하신 그들을 예수님의 소원 따라 구원시킬 수 있기 위한 수고였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데 자신감이 없고 힘있게 전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전도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늘소망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이 없고, 지옥갈 수밖에 없었던 자가 용서받는데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기쁨도 소망도 없습니다.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뿐 은혜도, 진리도 모른채, 성령체험도 없으니 구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자들은 예수님을 전할 수 없을뿐더러 성과는 더더욱 기대할 수 없습니다.

사도바울이 본문 23-24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연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 한 것은 아무리 상대방들의 처지에 깊이 함께 해주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도리, 복음 진리의 교훈에 어긋나는 것까지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친

구 하나 구원시킨다고 술집에 데려가 함께 술을 나누며 전도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기를 다루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라는 말씀은 어떤 한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에 집착하고 집념하고 총진력하기 위해서는 다른 여러 가지 허망한 문제들에 대한 기대를 깨끗이 포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서울에서 부산으로 5시간 안에 가야한다면 여러 곳을 경유하면서도 5시간 안에 부산에 갈 수 없습니다. 오로지 부산을 향해서만 질주해야 시간 안에 당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의 소망을 얻었으면 그 소망을 후회없이 영광스러운 자격으로 결실하기 위해서는 그 길이 좁고 험할지라도 오로지 그 길에만 내 사는 참뜻과 목적을 정하고 그 소망에 전생애를 걸고 경주할 수 있는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잡다한 풍속이나 유희, 미끼들을 초월해서 절제하며 천국을 향해야 할 것입니다. 천국으로 가고자 하는 목적이식이 분명하다면 절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영적인 소망, 내세에 대한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먼저 자기심령이 생명의 말씀을 꿀송이 같이 달게 받아 먹은 후 자신에게 맡겨진 아이들에게 맞추어 전달하고 먹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는 살피지 못하고 단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하고, 말재간으로 아이들을 재미나게 해서 인가나 얻어 보자는 교사들이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같은 자들은 바리새인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23:13 이후에 보면 계속적으로 “화 있을진저...”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외식하는 자, 소경된 인도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들을 그렇게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가르치는 자들은 입술로 선포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입체적인 가르침을 주어야 합니다. 들려주고, 보여주며, 심령에 부딪치는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무디고 완악한 심령이 부서져서 죄악이 허물어지고 영생의 새로운 소망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교회학교 교사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어린 생령들의 중요성을 깨달아 그들을 책임질 수 있는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말씀으로 아는 척하며 잘 가르쳤지만, 정작 본인은 그 가르침을 믿지 못하고 생활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지옥 길로 향하지 않도록 본문 27절의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으로라”는 사도바울의 고백과 같이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에 날마다 자기를 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생활을 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들도 먼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성령에 이끌리며 진리의 말씀, 생명의 교훈을 어린영혼들을 책임지는 사명자로서 기도하며, 실천적 생활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모든 자들도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국 선교 설교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외 선교 설교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AM1310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650 금요일 오후 2시30분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LA 미주 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성은복음선교회

# 2019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C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인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경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류종길 박사, 이사장: 김광수 박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aeu@americaevangelical.edu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way, Kansas City, MO 64118  
Tel: (816)414-3754 Email: ks@mbts.edu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속 목사고서, 인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총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시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 24 / KEB@GGTS.EDU  
WWW.GGTS.EDU / KEB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 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 기독교 교육학(MA CE), 신학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P-H**  
**Puente Hills Hyundai**  
**SUPER STORE**  
차종에 따라 60개월까지 0%이자가 가능

# SUMMER SPECIAL SALE



**NEW 2019 HYUNDAI ELANTRA SE**

Lease **\$148** +Tax **0 Down** **\$228** +Tax

All In Stock With MSRP **\$19,16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5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ONATA SE**

Lease **\$178** +Tax **0 Down** **\$25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3,4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4,00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TUCSON SE**

Lease **\$198** +Tax **0 Down** **\$27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4,730**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2,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NEW 2019 HYUNDAI SANTA FE SE 2.4L**

Lease **\$218** +Tax **0 Down** **\$298** +Tax

All In Stock With MSRP **\$26,605**

36 MONTHS CLOSED END LEASE, \$2,795 DUE AT SIGNING, \$3,250 LEASE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500 US MILITARY COUPON ON APPROVED CREDIT. 12,000 MILES/YEAR.



STEVE CHANG  
213.235.6825



PAUL KIM  
714.331.3855



MIKE LEE  
714.914.8414



JUSTIN KIL  
213.999.3935



CHARLEY JEONG  
213.276.8959



JAMES PARK  
213.839.3332



HARLEY KIM  
949.433.1378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Terms and conditions available  
\*See dealer for LIMITED WARRANTY details.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www.phhyundai.com](http://www.phhyundai.com)

**1-888-644-7114**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All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dealer preparation charges, and any emissions testing charges. Please contact Dealer for complete incentives and program details. Subject to change without prior notice. All prices, specifications and availability are subject to change without notice. Contact Dealer for current information. Your actual mileage may vary depending on how you drive and maintain your vehicle. Actual mileage will vary with options, driving conditions, driving habit and overall vehicle condition. All vehicles subject to prior sale. Expires 24 hours after publication. Plus Dealer installed options



# 국제도시선교회 미국재부흥운동 개막 27일은 뉴욕성시화 총력전도



전도 중인 미국 동부성시화운동본부(ICM), ©성시화운동 제공



뉴욕성시화총력전도대회, ©성시화운동 제공

국제도시선교회와 미국 동부성시화운동본부가 '미국 재부흥 운동-Revival for America'를 22일부터 29일까지 일정으로 개최 중이다.

'미국 재부흥 운동'은 130년전, 우리에게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해준 미국에 진 복음의 빛을 갖고 영적으로는 퇴보하고 있는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한 도시 전도 운동이다.

국제도시선교회(ICM) 김호성 목사(미국 동부성시화운동 본부장)는 "27일 토요일에 '뉴욕 성시화 총력 전도대회'가 개최된다"며 "뉴욕은 사도 바울이 갔던 로마와 같이 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도시로 400개 민족이 살고 있고 연간 약 6,000만명의 방문자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찾아 오고 있는 선교지"라고 했다.

지난해 뉴욕에서는 약 800여명의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전도에 참여해 '뉴욕 성시화 총력 전도대회'에서만 뉴욕 시민들과 뉴욕을 방문한 각 국의 외국인 1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올해는 미국 성도들과 타이완, 싱가포르 및 중국 성도들과 다민족 성도들도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전도운동으로 전개된다.

김 목사는 "1세와 2세 한인, 이민 교회, 교단과 교파를 초월하여 뉴욕에서 하루 종일 전도하는 이 운동은 이민 역사 120년에 처음 있는 도시 선교, 부흥 운동"이

라며 "한인들이 미국을 위하여 복음으로 섬기는 운동이자 우리 민족이 미국에 심겨진 그 이유와 정체성을 발견하는 운동"이라고 했다.

또 김 목사는 "뉴욕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 성도들은 이날 온 교우들과 함께 일년에 한 번이라도 현대의 로마인 뉴욕 시내로 나와 제2의 바울이 되어 복음 같이 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며 "그리하여 뉴욕과 우리가 사는 도시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시화 도시가 되며 우리 민족이 미국의 영적 부흥을 위하여 헌신하는 민족이 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한편 이 운동을 위해 미 동부에서는 김재열 목사, 허연행 목사, 김용훈 목사, 홍원기 PCA 직전 한인 총회장 등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교계 지도자들 실행위원으로 함께 동역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성시화운동본부 사무총장 김철영 목사, 아산성시화운동본부 본부장 이정팔 목사, 인천성시화운동본부 김성호 장로, 춘천성시화운동본부 김옥기 원장을 비롯해 한국에서도 80여명이 참석한다. 미주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최문환 장로, 대표회장 송정명 목사, 상임본부장 이성우 목사 등도 참석한다. 일본 동경성시화운동본부 신현석 목사도 참가한다.

김신의 기자

#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최성은 목사 한국 지구촌교회로 파송



타코마 제일침례교회는 오는 8월 4일(주일) 오후 5시, 최성은 목사 이임 및 파송 감사예배를 드린다.

최성은 목사는 파송예배 후 오는 9월부터 한국 지구촌교회에서 사역을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 4월 지구촌교회는 임시제직회 및 임시사무총회를 통해 95.9%의 찬성으로 최성은 목사를 지구촌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인준 후, 타코마제일침례교회로 청빙요청서를 전달했고, 타코마제일침례교회는 한 달 동안의 기도와 제직회 및 임시사무처리회를 통해 최성은 목사를 지구촌교회로 파송하기로 결정한다.

최 목사는 2004년에 남침례교단 소속 국내 선교사로 파송 받아 내쉬빌 다리봉

은 교회(Bridge Community Church)를 개척했으며, 찬양집회인 "Rise Up International Ministry"를 통해 다민족 2세들도 더불어 섬겼다. 2011년에 타코마제일침례교회 제3대 담임목사로 취임한 이후에는 강해설교와, 지역선교, 해외선교, 셀 그룹 등 다양한 사역으로 교회를 성장시켜 왔다.

특히 최성은 목사는 부임 후 세 차례에 걸쳐 한국의 자유를 위해 헌신했던 6.25 참전 용사들에게 감사를 전하는 뜻 깊은 행사를 마련하기도 했다.

한편 타코마 제일침례교회 청빙위원회는 '전교인 40일 연쇄 금식기도'와 함께 제4대 담임 목사 청빙을 진행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 교회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주중 영혼의 섬 예배 오후 7:30(월, 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회차림 순경회고 스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3251 W. 6th St. Suite B1, LA, CA 90020  
T. (213) 674-7966, (213)245-6616

주일예배 오전 11:00  
고육부 예배 오전 11:00  
평신도 리더십훈련 매주 수 오후 7:00  
금요 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후 9:00

**씨니킴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4009 Wilshire Blvd. #100B, LA, CA 90010  
T. (323) 833-909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새벽예배) 오전 9:30  
3부예배(저녁예배) 오전 11:30 \*한양사역 각 예배 15분 전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수요청년부/도모임(수) 오후 7:30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민2세를 책임지며, 이민가정을 치유하며, 선교영광을 증진하는 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교차)  
T. (213)386-2233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영성공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장태원 담임목사**

**LA세계선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3407 W. 6t. #412 (6가와 카탈리나), LA, CA 90020  
T. (213) 909-6473 / www.missionla.org

Rain down 주일예배 오후 3:30  
Heart of David 금요일예배 오후 8:00  
Lighter 전도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

**최수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1521 S. Hill St., LA, CA 90015  
T. (310) 905-2228 / newchurchdtda.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연합새벽 오전 6:20

**한현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30  
3부예배 오후 2: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유초등부 오후 10:30  
중고등부 오후 10:30

**강진웅 담임목사**

**갈보리민음교회**  
그리스도와 / 성도와 / 이웃과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주일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토) 오전 6:00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264 S. Rampart Blvd. #276, LA, CA 90057  
T. (213) 272-6031 (37와 Rampart 교차로 북동쪽에 위치)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영성예배)

성인 EM예배 오후 12:30  
한양청년예배 오후 12:30  
청양예배 주일오후 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박현성 담임목사**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os Angeles, CA 90019  
T. (323) 634-9191 / laopendoor.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00(토)

**김문수 담임목사**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6:00

영어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지용덕 담임목사**

**미주양곡교회**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민교회와 가정을 섬기는 말씀공동체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T. (213) 380-9377 / (213) 267-0030 www.churchla.org

대예배 1부 오전 8:00  
대예배 2부 오전 11:0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후 7:30  
중고등부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정병노 담임목사**

**새일교회**  
LA Sehil Presbyterian Church

760 S. Westmoreland Ave, Los Angeles, CA 90005  
Tel. (213)384-8690, (213)820-7240 Email: lasehil2011@gmail.com  
(67와 Westmoreland 교차 First Baptist Church 안에 있습니다)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유년부 EM 오전 11:00  
중고등부 EM 오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정세훈 담임목사**

**새한교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월요일 7:21)

2531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386-0685 www.lasahan.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50  
영유아부 유초등 오전 10:50  
중고등부 오전 11:00

청년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토요일예배 오전 6:00

**정인호 담임목사**

**예수마을교회**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인

616 Shatto Pl., Los Angeles, CA 90005  
T. (213)249-9191, www.lajvc.webchurch.kr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15  
중고등부 오전 11:00  
유저부, 유년부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EM 영어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유저부, 유년부 초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00

**곽건섭 담임목사**

**예은장로교회**

1401 W. Washington Blvd., LA, CA 90007  
T. (213)745-9997

주일예배 오전 10:45  
주일오후예배 오후 1:00  
매일 밤 기도회 오후 9: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월-금)

**박은중 담임목사**

**예일한인교회**  
치유하는 교회, 회복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1611 Beverly Bl., Los Angeles, CA 90026  
T. (213) 975-9191 www.wpcjesus.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김종호 담임목사**

**예향선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ew@hotmail.com

주일 1부예배(분당) 오전 8:30  
주일 2부예배(분당)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분당) 저녁 8:30  
리셋예배(말씀예배) (스케줄링)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종교개혁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정장수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같은 말, 마음, 꿈, 열매

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 (213)387-1700 C. (213)500-4737 / olympic-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00  
리타노 오후 6:30

GCEM 오후 1:0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30(토)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영아부 유아/이동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매주 화-토 오전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나눔의 행복이 있는 교회

3412 W.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383-4951 / 4952 F. (213)383-5085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유저부, 유년부 초등부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00  
토요일예배 오후 9:00

**김은목 담임목사**

**평화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성령을 통해 하나님나라와 이웃사랑을 행하는교회

2538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251-9191 www.pccj.church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opyright © 2019 by 기독교일보. All rights reserved.



**박효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년부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Youth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8:00 청년대학부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풍성한 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며 선교하는 교회

2911 Beverly Blvd., LA, CA 90057  
T. (213) 381-9490

**곽부한**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도회) 오후 8:00  
한국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 (213) 321-4433

**이순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목요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한샘교회**  
The Church By the Stream / 은혜의 샘, 생수의 강

1911 Wilshire Bl., LA, CA 90057  
T. (213) 505-3838 / yes9389@hotmail.com

**강지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령과 진리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LA 동부, 라스베가스

**고태형**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를 꿈꾸는 공동체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com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어린아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갯스윌연합교회**  
여호와의 찾을 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정동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토)

**나성교회**

1620 N. Fullerton Rd. La Habra Heights, CA 90631  
T. (562) 690-7979 F. (562) 690-0038

**신용환**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7:3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50 유초등부/유치부 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6:00

**나성한미교회**  
부르심에 응답하고 보내심에 반응하는 교회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김성원**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 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성령 새음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 674-3016, cell. (562) 417-1800  
www.newhopechurch.org

**장주영**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0:45  
중보기도모임 오전 9:15-10:00(주일)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6:30(토)

**뉴스송교회**  
새 시대를 책임지는 건강한 교회

1550 Greenbriar Ave. Corona, CA 92880  
T. (951) 272-9126 / www.newsongcorona.com

**우영화** 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10:00 오전 6:30 (토)

**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랑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 590-3722 www.eastsarang.org

**조응철**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안 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35 수요일침례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고송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이춘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창대장로교회**  
하나님께서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51) 966-9191

**조준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수요기도회 오후 7:30 오전 6:30(토)  
중국어 성경공부 오후 7:30(토) 汉语圣经班: 周二晚上 7:30分

**치노밸리 아름다운 교회**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5135 Edison ave, suite 13, Chino, CA 91710  
T. (714) 461-6412

**최승묵**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00 (저성전) 금요예배 오후 7:30  
오전 11:00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새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T. (760) 636-2675 / pspkmc.com

**송재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EM예배 오후 1:00 EM성경공부 오후 7:30 (금)  
중보기도모임 오전 10:30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지된 삶을 실현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밸리, 글렌데일, 파사데나

**김경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7:00 JCCC Academy  
주일 2부 오전 9:00 EM 10:15, 오후 12:40 (교육관)  
주일 3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Blended Service) EM 오전 11:15 (교육관)  
사랑부 오전 8:45 (교육관)

**기쁜우리교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333 E.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T. (818) 662-0400 www.joyfulccc.org

**이정현**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양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30  
유년부 오전 10: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 CA 91325  
T. (818) 882-9191 / (818) 882-9777 www.churchmannam.com

**방수민**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00 한국학교 주일 오전 10:0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금)  
중고등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하는 교회 친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윤대혁**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EM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 오전 9:30 사랑의 빛 반 주일오전 11:30  
주일 3부 오전 1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젊은이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사랑의빛선교교회**  
말씀위에 굳게 서리라

2801 E Colorado Bl., Pasadena, CA 91107  
T. (626) 744-9191 www.lolmc.org

**오명찬** 담임목사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 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7:30 한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소통하는 교회(Communicat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곽덕근** 담임목사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아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최 희** 담임목사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MP예배 주일 1부 예배 오전 9:3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3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8 588 Atlas Ave, Monterey Park, CA 91755  
T. (818) 383-5887 Tel: (323) 837-0900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민중기**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4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리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F. (818) 549-9199 / choonghyun.org

“일본, 식민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라”

교단장들, 22일 모임 후 관련 성명 채택



교단장회의 참석자들이 기도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가 22일 아침 서울 한 호텔에서 모임을 가진 후 최근 한일 관계와 논란이 되고 있는 ‘정치 참여’ 등에 대한 입장을 성명을 통해 밝혔다. 교단장회의는 이날 채택한 성명에서 “일본 정부가 한국을 향한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며 “일본은 과거의 식민지 지배 피해자들에게 대해서 배상을 실시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평화헌법을 견지하여 양국의 상생 우호관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NAP의 독소조항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 및 종교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시설 복지법인의 종교행위 금지조치 등이 대한민국이 지켜온 종교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기에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일부 교회 지도자들이 보이는 편향적인 세속정치 참여와 극단적 정치적인 발언에 대하여 심각하게 우려한다”면서 “교회 지도자들이 본분을 지키는 특정한 이념이나 특정단체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극단적인 정치적인 주장을 펴는 일을 피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청와대 오찬, 최근 정치상황과 무관”

주요 교단장들로 구성된 한국교회교단장회의(이하 교단장회의)가 지난 3일 ‘청와대 오찬’에 대한 ‘입장문’을 17일 공개했다. 교단장회의는 “금번 오찬은 금년 초부터 서로 협의하여 오던 중 5월 말 최종 조율하여 확정했다. 따라서 최근의 정치상황과 무관하다”며 “본회는 대통령 초청 오찬을 통해 정부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 청취와 한국교회가 당면한 문제들에 대해 가감없는 전달을 원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이승희 목사의 답사

다. 이런 원칙과 목표가 서로간에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초청받은 우리는 한국교회 교계의 교단장들이다. 한국교회와 정부간의 건강한 소통의 창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고 한다. 교단장회의는 또 “교단장들은 한국교회의 당면과제로 NAP의 독소조항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불가함, 종교단체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사립학교와 시설 복지법인의 종교행위 금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반대, 또한 남남갈등과 인권문제의 심각함과 교회

교단장회의 “한국교회 입장 분명히 밝혔다”

를 통해 초청에 대한 감사와 한국교회 교회의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이후 비공개 대화에서도 한국교회의 당면과제에 대해 가감없이 전달했다”고 덧붙였다. 교단장회의에 따르면 이승희 목사(예장 합동 총회장)는 답사에서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의 전통적 원칙이 있다. 그것은 교회의 일은 교회가, 정부의 일은 정부가 한다는 것”이라며 “서로 간섭하거나 침해받지 않으면서 함께 더 좋은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이

의 역할 등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를 나누었다”고 했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계에서 교단장들의 행보를 매도하거나 비난하는 행태는 한국교회의 평화와 연합을 허무는 정략적 언동으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회는 그 어떤 정당에 대하여서도 무조건적 지지나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이념과 정책에 대하여 선별적 지지와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그 기준은 성경의 가르침과 한국교회의 공통된 입장에 기반을 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소강석 목사 “동성애는 하루살이 아닌 낙타”

소강석 목사(새에덴교회)가 “동성애 자체가 얼마나 큰 죄인가. 동성애는 하루살이 가 아니라 낙타와 같은 욕망”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21일 ‘홀리 체인저가 되라’(시편 33:8~12)라는 제목의 주일예배 설교에서 “어떻게 동성애와 동성애 운동을 하루살이에 빗대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근 분당우리교회 부목사 설교로 촉발된 ‘동성애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소 목사는 “기독교 윤리와 교회 개혁 운동에 앞장서신 큰 학자이자 어르신께서 어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며 해당 내용을 아래와 같이 요약했다. “동성애에 대한 미국 복음주의자들이나 한국 보수교인들의 전쟁은 승산이 별로 없으며 이미 전세는 기울어졌다.” “그리고 동성애라는 하루살이와 싸우느라 정의와 긍휼이라는 낙타를 포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미국교회가 동성애 문제를 종교적 신념이나 가치 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적 흐름이나 양상으로 보았기 때문”이라며 “교회는 동성애 합법화를 막을 수 있는 사회적 지지와 동력을 잃기 시작했다”고 했다. 그는 “미국 50개 주 가운데 37개 주가 동성결혼을 합법화했다. 이런 역사적 흐름을 안다면, 동성애 운동을 어떻게 하루살이에 비유할 수 있단 말인가”라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그것(동성애가 하루살이라는 주장)은 죄에 대한 욕망과 동성애 합법화 시도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라고 했다. 소 목사는 “당연히 우리 안에 있는 낙타, 더러운 욕망을 버려야 한다. 정의와 긍휼을 앞세워야 한다”며 “그러나 동성애 합법화와 반기독교 문화의 법제화가 더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한다. 영국과 미국 교회 목회자들이 이걸 몰랐다”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가 이런 전철을 밟으려고 하고 있다. 우리의 생각과 정신이 과거 영미교회 사상을 그대로 따라간다.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진영 기자



소강석 목사. ©새에덴교회



# 트럼프 대통령, 탈북민 등 종교박해 생존자들 백악관 초청

## “종교자유 강력히 지지하겠다” 의지 밝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종교로 인해 박해를 받은 생존자들을 만나 박해에 관한 증언을 듣고, 종교자유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밝혔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8일 보도했다.

미국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17개국의 종교박해 생존자 27명을 백악관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로 초청해 면담하는 시간을 가졌다면 이 같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종교의 자유를 강력히 지지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를 밝혔다.

이 행사에는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서 증언한 탈북민 주 씨도 참석했다. 주 씨는 이날 회의에서 “북한 정권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 극악무도한 고문이 자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씨는 이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도 “북한의 친인척들이 종교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잔혹하게 탄압당했다. 고모와 그 가족들이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모

두 정치범수용소에 보내졌고 사촌 가족은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두 처형됐다”고 전했다.

주 씨는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한 후, 군 장교로 복무한 주 씨의 할아버지도 친구들과 북한의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다는 이유로 정치범수용소에 잡혀들어갔다고 전했다.

그는 “아버지가 9살 때 할아버지가 정치범수용소로 잡혀들어가면서 아버지는 한 순간에 정치범의 지식으로 전락해버렸다”며 “내 아버지를 빼앗아 간 나라는 분노와 상처가 있었다”고 했다.

주 씨의 아버지는 네 번의 시도 끝에 먼저 탈북에 성공했고, 1년 후 주 씨도 어머니, 누나와 탈북에 성공하게 됐다.

주 씨는 “남한과 북한을 모두 경험한 사람으로서 스스로에게 남북 분단의 상처를 치유할 의무가 있다”면서 “저희 가족은 다섯명이 모두 함께 있게 되어 정말 축복을 받은 일이다. 그래서 더욱 저희만 누리지 않고 이를 전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강혜진 기자

# “평등법(The Equality Act),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될 것”

##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언론 기고 통해 경고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 제공

미국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연방에서 인정하는 시민권으로 분류하여 보호하는 ‘평등법(The Equality Act)’이 통과될 경우, 기독교인과 교회에 재앙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6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그레함 목사는 최근 ‘디시전 매거진’(Decision Magazine)에 기고한 글에서 “민주당 낸시 펠로시 대변인이 지난 3월 발의한 이 법안은 종교적 소수자들이나 여성들과 동일하게 성소수자 공동체의 시민적 권리에 관한 법률의 보호를 보장하고 있다. 이 법안은 그러나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중요한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레함 목사는 “만약 민주당 의원들이 상원과 백악관을 장악하면, 이 발의안은 법률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진보적이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은 이 발의안을 이미 통과시켰다. 공화당이 거침없는 그들의 행보를 막고 있다. 만약 상원의 다수가 변경되거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입장을 바꿔 발의안을 통

과시킨다면, 이에 대한 거부권은 대통령에게 달려있다. 만약 2020년까지 백악관이 이에 대한 입장을 변경한다면, 이 발의안이 미국의 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이 법안은 교회를 비롯해 신앙을 바탕으로 한 비영리기관이나 경쟁 스포츠 종목에 재앙과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교회나 기독교 비영리기관은 성경적인 신앙고백에 따라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한 모든 법적 보호를 잃게 될 수 있다. 진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은 그 어느 때보다 박해를 받게 될 것이다. 동성애나 낙태 죄에 관한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은 의심할 바 없이 ‘혐오 표현’이 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들은 미국에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악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그레함 목사는 ‘동성애 축제의 달’이었던 지난 6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 국가의 미국대사관의 공식 깃대에는 동성애 깃발이 아닌 성조기만 달수 있다는 입장을 확고히 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도 했다.

강혜진 기자

### 사우스베이, 토렌스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치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유초등부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유치부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신태섭 담임목사**

**가디나장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성령의 공동체

1340 W Gardena Blvd, Gardena, CA 90247  
T. (310)217-9191 www.gpclove.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 Bible Study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2부예배(E.M) 오후 11:00

**이석부 담임목사**

**나성금란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는 교회 (계 2:5)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김준식 담임목사**

**남가주샬롬교회**

복음과 사랑을 전파하는 교회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8:00 중/고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2부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권영국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15 (화-금)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하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951-3153

1부예배 오전 8:00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257-8170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후 1:0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할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열린예배 오후 1:30  
이름딛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께 갈지어라(롬 10:15)

**이호우 담임목사**

**좋은소식교회**

Good News Church

15435 S. Western Ave. #200, Gardena, CA 90249  
T. (562) 453-5644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3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성령대만회 금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처음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이상훈 담임목사**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vision.org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30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00  
EM예배 1부 오전 9:30/2부 오전 11:0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2222

주일1부예배 오전 8:00 분당  
주일2부예배 오전 9:45 분당  
E.M 예배 오전 9:45 T.O.T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분당  
KM청년예배 오후 2:00 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 분당  
새벽예배(월-토) 오후 5:30 분당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러짐으로 오병이여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ccg.org

주일1부 오전 9:00 주일2부 오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1부, 6:30/2부)

**윤 목 담임목사**

**한인소망교회**

복음주의 신학에 기초한 말씀이 선포되는교회

28340 Highridge Rd, Rolling Hills Estates, CA 90274  
T. (310)715-9902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O. C, 엘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1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성경통독모임 오전 9: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유초등부 오전 11:00  
Youth/College 오전 11:00

**이명익 담임목사**

**UBM교회**

그리스도의 몸과 함께 연합하는 교회

151 E. Commonwealth Ave. Fullerton, CA 92832  
Tel: 714-336-8995 www.ubmchurch.com

주일예배 오후 12:2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민승기 담임목사**

**갈보리새생명교회**

행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111 W. Las Palmas Drive, Fullerton, CA 92835  
T. (714)615-9191, 995-5351 john\_m9191@yahoo.com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평양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평양예배 오전 9:30, 11:30  
한아침(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 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한국어) 오전 8:00  
2부(한국어) 오전 11:00 말씀묵상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3부(영어) 오후 1:30 한국교회(과목)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Orchestra (주일) 오후 1:30  
토요일연합예배 오전 8:3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교회**

다시 복음으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T. (562)691-0691

1부예배 오전 8: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30 유, 초등부예배 오전 11: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설거주예배 매일 4째주 주일 오후 5:30분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562) 524-2037 bethelchurchca@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아예배(E.O)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들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저녁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오전 6:00(토)  
교회학교 주일 오전 11:00

**이 일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예수 영으로 열매를 맺는 복음공동체. ALL IN JESUS 복수제 20년 갓는 예수공동체

10871 Western Ave., Stanton, CA 90680  
T. (714) 952-0191 / www.socafgc.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1:0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의 선물로 세운 믿어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9:00 교육부 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수요성령집회 오후 8:00 중고등부, 대학청년부  
한국교회 주일 오후 1:30

**왕상윤 담임목사**

**NEXT 사랑의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교회

11 Musick Honor Farm Rd, Irvine, CA 92618  
T. (949) 829-0010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일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 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9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주일 1부 예배 : 오전 9:45 목요일예배 : 오후 7시  
주일 2부 예배 : 오전 11:00 새벽기도 : 오전 6:00(화-금)  
유년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생모담 : 매달 둘째 및 셋째 금요일  
중고등부예배 : 주일 오전 11:00

**안상희 담임목사**

**남가주늘사랑교회**  
Everlove Baptist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1461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714) 525-0191 / www.ebscca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www.dagamsachurch.org

**김일권 담임목사**

**다 감사교회**  
예수님과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988-3321, (562) 996-1665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30  
Youth/ College 주일 오전 11:00

**안성복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행복한 동행!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9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학교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월-금 새벽 5:30  
3부 오후 1:00 (영아예배) 토 새벽 6:20  
4부 오후 2:00 (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제자공동체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30  
장안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0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람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 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8:45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오전 6:00(토)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00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15 성인영아 예배 오전 9:15,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15 일변어 예배 오후 1:30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15,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영아, 유아, 주일학교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Youth, 청년 오후 12:30

**정기정 담임목사**

**샘물교회**  
샘물이 흘러나와 사람과 세상을 살리는 교회

11909 Courser Ave, La Mirada, CA 9063  
T. (714) 749-7770 www.saemmoor.church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종교동부 오전 9:15, 11:30  
3부 오전 11:30 한아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00

**박신웅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들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EM 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2부예배 오전 9:30 새벽 예배 오전 5:30(월-금)  
3부예배 오전 11:30 오전 6:00(토)  
4부예배 오후 1:30(청년 영아) 청년부 수요성경기도회 오후 7:30  
FAN예배 오전 11:30(청년 영아)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roc.com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민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목요 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8:30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 예배 오전 11:00 수요 예배 오후 7:30  
2부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6:00  
E.M.(Youth) 오전 11:00

**김민철 담임목사**

**오렌지가나안장로교회**  
교회와 나는 하나이며 기쁨도 슬픔도 함께하는 온영공동체

940 W. Wilshire Ave. Santa Ana, CA 92707  
T. (714) 549-0121 www.myocpc.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5 (매월 마지막 금요일)  
3부찬양 오전 11: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루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rcroc.com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영아 예배 오전 10:00 오전 6:00(토)  
유초등 예배 오전 11:30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회복과 회심을 경험하는 예배공동체

1937 W. Chapman Ave., Orange, CA 92868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훈 담임목사**

**함께 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 (213) 598-9130 breadhoon@hanmail.net

EM CHURCH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7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1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oc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OSEPH SU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org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 LA,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chdailya@gmail.com



박해받는 기독교인들을 기뻐하기 위해 붉은 조명으로 물든 콜로세움 전경. ©영국 크리스천투데이

# “종교에 대한 규제, 지난 10년 간 전 세계적으로 증가”

## 가장 박해받는 집단은 기독교인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종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증가하고 있으며, 다른 어떤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전 세계 종교 규제의 증가에 대한 고찰'(A Closer Look at How Religious Restrictions Have Risen Around the World)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간 약 198개국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43개국에서 기독교인들이 박해에 직면해 있으며, 세계에서 가장 박해받는 집단으로 나타났다. 무슬림은 140개 국가에서 박해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대인들의 경우 87개국에서 박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또 “2007년부터 2017년까지 약 10년 동안, 전 세계에서 종교적 신념과 종교 생활에 대한 정부의 법적·정책적 규제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기관 또는 단체에 의한 폭력 및 학대 등 종교와 관련된 사회적 적대감 역시 2007년 이후 계속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이나 북부 아프리카의 경우, 기독교인과 무슬림들이 가장 박해를 받는 지역으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

해 수준이 2번째로 높았다. 지난 10년 간 ‘높음’ 또는 ‘아주 높음’ 수준으로 종교를 규제한 국가는 40에서 52개국으로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인구가 많은 중국과 러시아도 포함돼 있었다.

종교에 대한 정부의 규제는 민주화된 국가들 사이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규제가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은 유럽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10년 동안 2배나 증가했다.

다양한 종교 단체들의 대중 설교나 전도 등을 금지한 스페인과 같이 종교에 관한 규제를 두는 유럽의 국가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다.

종교에 대한 규제와 적대감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난 아메리카 대륙의 경우도 종교 활동에 대한 제약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 동안, 종교 활동을 규제하는 나라는 16에서 28개국으로 늘었다.

미국의 경우 종교에 대한 적대감이 2007년 0.0에서 2017년 4.0으로 증가했다.

결과적으로 종교에 대한 규제의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중국, 이란, 러시아, 이집트 그리고 인도네시아 순이었다. 반대로 가장 낮은 나라는 남아프리카, 일본, 필리핀, 브라질, 그리고 한국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6개국(13%)만이 모든 종교를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혜진 기자

# 중국서 불법 종교 활동 제보하면 약 1천 달러 포상

## 한국 VOM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 서명 운동 동참 촉구



사복 차림 당국자들이 구이양시의 가정교회 한 곳을 급습하여 기독교인들을 찍고 있다(좌), 탕허현 원평 구청이 게시한 공고문(우) ©한국 순교자의 소리·차이나에이드

중국 구이저우성의 중심 도시 구이양(Guiyang) 시 당국이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에게 1천 달러 가량의 포상금을 걸었다고 한국 순교자의 소리(VOM)가 차이나에이드(ChinaAid)를 인용해 밝혔다.

한국 VOM은 16일 보도자료를에서 “중국 정부에 등록하지 않고 모이는 교회나 수상쩍은 불법 종교 현상이나 활동을 제보하는 사람은 이제 포상금을 받는다”며 “중국 정부에 등록하면 정부의 검열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중국에는 미등록된 불법 교회가 많다”고 설명했다.

한국 VOM은 “이번 공고는 단지 한 지역만의 조치가 아니다. 중국 사역 협력단체인 차이나에이드는 중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종교 활동을 제보할 경우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포상 받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중국 남서부 허난성 관청은 지난 1월 28일 주민들에게 ‘불법 종교 활동’을 긴급 전화 제보해달라는 공고문을 발표했다. 제보자의 신원은 비밀로 하며, 제보 사실에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허난성의 탕허현(Tanghe County) 원평 구청의 공고문에는 “종교적인 현관을 걸

거나 음력 설에 종교적 메시지를 적어 대문이나 벽에 붙이는 사람은 즉각 저지당하고 제대로 교육받게 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또 “불법 종교 집회 활동에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벌금 2~20만 위안을 부과한다” “중국 종교사무조례 69조와 71조에 따라 위와 같은 행위는 불법” “종교 사무조례를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중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엄포한다.

한국 VOM은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껴박받는 중국의 미등록 가정교회와 함께 하는 방법 중 하나는 2018년 9월 중국 목회자 439명이 서명한 ‘기독교 신앙을 위한 선언서’에 함께 서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www.chinadeclaration.org). 현수 폴리 한국 VOM 대표는 “한국과 세계 곳곳의 기독교인들은 구이저우성과 허난성 교회를 지지해야 하며, 그 사실을 중국 당국에 알려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가정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탄압이 확대되고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국 VOM은 성명서에 서명한 중국 목회자 439명의 100배인 4만3,900명의 한국 교회 성도가 서명하면, 이 선언서를 중국 대사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희 기자



## 나는 지금 어떤 부메랑을 던지고 있습니까?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와 중부 원주민이 사용하던 무기와 사냥꾼의 도구 가운데 부메랑(boomerang)이 있습니다. 부메랑의 형태는 다양하지만, 길이 30~80cm, 양끝이 70~120도 벌어진 나뭇조각으로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회전하며 날아가서 맞히거나, 맞지 않으면 되돌아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메랑이란 단어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언어가되었는데, '자신이 저지른 일의 과보를 자신이 당한다.'는 자업자득(自業自得),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자신이 구속을 당한다.'는 자승자박(自繩自縛)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의 왕 사자가 파스한 봄날 풀밭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쥐 한 마리가 그만 사자의 발을 밟고 말았습니다. '누구야?' 잠자던 사자가 깨어서 소리를 지르자, 생쥐는 그 소리에 놀라 움직이지도 못한 채 '사자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시면 그 은혜 꼭 갚을게요.' 사자는 콧방귀를 끼면서 '너같이 힘없는 동물이나한테 은혜를 갚는다고?' 말도 안 된다는 표정을 짓고 있자 쥐는 '앞으로 조심할 테니까 제발 봐주세요.'라고 재차 애원했습니다. 사자는 즐리고 귀찮다는 듯 알았으니 가보라고 했고, 생쥐는 얼



진 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른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자의 큰 울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생쥐가 얼른 그 자리로 가보았더니 사냥꾼이 설치한 그물 탓에 걸려 사자가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습니다. 생쥐는 자신의 날카로운 이빨로 그물을 하나씩 자르기 시작했고, 사자는 그물에서 빠져나와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부메랑 효과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성경은 온통 부메랑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불순종한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인류는 에덴동산을 상실하고, 가난과 저주의 가시와 영경귀, 질병과 사망이 있는 고난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를 누이라 속이고 애굽의 바로왕에게 목숨을 구걸했는데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그 아들 이삭도 아내 리브가

를 누이라고 그랄 왕을 속이게 됩니다. 야곱은 염소새끼 별미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이 요셉의 채색 옷에 염소피를 묻혀 사기를 치므로 22 년동안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살아야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밋세바를 취하고, 은폐하는 과정에서 우리아를 적진에서 죽게 했습니다.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 사무엘하13장 이후에 다윗의 장자 압논이 이복누이 다말을 성폭행하고, 다말의 오빠 압살롬은 이복형 압논을 살해합니다. 성경은 "그 일"과 "이 일"의 인과관계를 통해 다윗의 사건이 부메랑이되어 그의 자녀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불행한 사건이 반복되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비판과 정죄의 부메랑을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용서와 사랑의 부메랑을 던지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망을 이기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앞에 무릎 꿇게 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믿는 나는 지금 어떤 부메랑을 던지고 있습니까? 사랑과 은혜의 부메랑입니까, 죄와 저주의 부메랑입니까?

## 비전의 창을 여는 기도

오래전 영국에 윌리엄이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비록 그는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만, 예수님을 만난 후 꿈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구두 수선 가게에 세계 지도를 걸어 놓고 그 밑에 다음과 같은 표어를 붙여 놓았습니다.

- 큰 비전을 가지라 (Great Vision)
- 큰 기도를 하라 (Great Pray)
- 큰 기대를 걸라 (Great Expect)

사람들은 수선공 주제에 무엇을 할 수 있겠냐고 비웃었지만 그는 매일 아침 그 표어를 가슴에 품고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단련된 세계 선교의 문을 열고 근대 선교의 새 장을 시작하는 일군이 되었습니다. 그가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우는 윌



박성근 목사  
남가주새누리교회

리엄 캐리였습니다. 무슨 일이건 비전이 없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비전은 사역과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비전이 아무리 위대해도 그것을 뒷받침해 줄 능력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히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

는데 있어 기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랄 지경입니다. 선교의 문을 여는 것도 기도요, 막힌 담을 허무는 것도 기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도 기도의 위력입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어떤 계획이나 꿈도 성취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은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예배의 부흥도, 새 변화의 바람도, 가정의 회복과 자녀의 미래도 기도에 달려 있습니다.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중축은 새 비전의 창을 여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현실은 어둡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대



김한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니다. 사람들이 몰려들고 마을이 형성되어 산업이 발전 하고 교육 기관이 세워지며 주 정부 자체로만 따져도 세계 경제 순위 5위인 지금의 캘리포니아가 된 것은 등대가 바로 그 시작점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마 5:14)고 말씀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빛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몰리기 시작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후배 목사가 시작한 개척교회의 이름은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등대지기의

역할입니다. 지금은 등대가 있는 장소가 멋진 바다 경관을 볼 수 있는 관광지처럼 잘 꾸며져 있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사는 곳과는 거리가 좀 떨어진 곳에서 거친 바닷바람과 싸우면서 전기가 아닌 기름을 때며 밤새 등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했습니다. 해가 뜨면 마차를 끌고 마을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사오고, 밤에는 불이 꺼지지 않도록 등대 안에서 긴긴밤을 외로움과 싸워야 했습니다. 등대지기의 가족들은 그렇게 등대에 살면서 학교가 멀어 자녀들은 홈 스쿨링을 했고, 친구가 없어서 바닷가에서 조개를 캐며 놀았다고 합니다. 하나의 등대를 위해서 가족 전체가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러한 등대지기와 그 가족들이 등대를 지켰기에 지금의 우리가 여기에 잘 살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크리스천이 사는 곳이 이 세상을 향해 빛을 비추는 등대가 서 있는 곳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 가족들은 이 땅의 등대지기입니다. 그 빛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 담임 목사 청빙

아리조나 피닉스 동쪽에 위치한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에서는 20년째 담임 목회를 해오신 조정기 목사님이 은퇴를 앞두고 있어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을 청빙 합니다.

### ■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 또는 대학원이상 졸업하신 분
2.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3. 미국 체류에 법적문제 없으신 분

###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목사 안수 증명서
3.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4. 자기 소개서
5. 최근 설교 CD
6. 추천서

### ■ 제출 방법

1. 청빙 위원회 이메일 (jungeun.park1014@gmail.com)
2. 우편 (430 N. Lewis St., Mesa AZ 85201)

■ 제출기한 : 2019년 12월 31일(화)

■ 연락 : T.(480)435-0998

\*\*청빙 절차에 따라서 서류 심사 후 개별 통지 합니다.

## 갈보리 한인 교회

Calvary Korean Community Church

## 전도사 청빙

뉴저지 은혜와 사랑교회 (미국장로교, 담임:소기범 목사)에서 아동부 전도사님을 청빙합니다.

- 지원자격 : M.Div, 학위 소지 혹은 재학 중인 분
- 급 여 : 상의 후 결정
- 사역내용 : 아동부 목회
- 제출서류 : 이력서, 자기소개서
- 보내실곳 : jcworld21@hotmail.com
- 문의 : 목회 부장 T.(201)522-3011



"영성이 깊은 교회, 세상을 위한 교회"

55 Magnolia Avenue Tenafly, NJ 07670

Tel:(201)567-3535

www.gracelovechurch.org

## LOS ANGELES MONTEREY PARK GOLF ACADEMY

## 일반인·주니어를 위한 특별 맞춤 골프 프로그램

- 대상 : 일반인·주니어 레슨(8살~18살)
- 시간 : 평일 레슨(화~금), 주말 레슨(토)
- 장소 : Monterey Park Golf Club (LA한인타운에서 차로 15분 거리)

- 골프 선수를 꿈꾸는 꿈나무, 대학진학 전문상담
- PGA 투어 출신 프로가 체계적인 스윙 교정, 숏 게임, 필드 레슨까지



Robert Sul  
University of Las Vegas Golf Team's 2 Times 백상배 챔피언  
2009 KPGA TOUR  
AJGA all-American  
Golf Digest Top Ten Amateur



Kenny Kim  
Named 2004 Gahr High School Athlete of the Year  
UC Irvine Men's Golf Team from 2004~2008  
2006 PGA Tour Buick Open at Torrey Pines  
2010 U.S Open at Pebble Beach  
2010 PGA Tour Reno-Tahoe Open  
2011 Long Beach Open(T2nd)

T:(562) 383-3566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헤밀리자동차 그룹**  
www.alexkimtrading.com

대표전화 323.737.5900  
David Kim 213.703.7077

## 중고차의 황제

출장방문 가능, 일요일도 오픈  
933 S. Western Ave, LA, CA 90006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Master Tailor  
김병호



### CD Printing

CD전문 주니어미디어입니다.  
교회학교, 부흥회 시디 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1,000장 이상 주문시  
**신년맞이 이벤트**  
(프린트CD + CD봉투 + 라벨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Free)



그밖의 다양한 콘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www.junimedia.com

### 한인타운 한의원

**급매** 크기 1,150 sf

문의 : (213)381-7575

### 아이넥스 바디샵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입니다.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4시간 사고발생시 연락주시면 언제든 달려갑니다.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 월 \$10
- 강사경력 :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 213.392.2323

9가 로데오 갤러리 몰

## 오페라 하우스 베이커리

교회행사용

### CAKE, 빵 주문시 SALE

케익 및 빵  
단체주문 환영

T.(213)384-1999 operahousebakery@gmail.com  
833 S. Western Ave, #38, LA, CA 90005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 매달 2커플에게 드리는 야외촬영(2시간) Free

계약에 관계없이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께  
무료로 촬영해 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영정사진, 가족사진



Scott Kim Studio

213-810-4000 scottkimstudio@gmail.com  
Kakao talk ID: scottkimstudio

## 목소리 재능 기부

현재 방송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우 스킷 김입니다.  
교회에서 성우 같은 전문적인 목소리를  
필요로 하는 곳이면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LA 인근 지역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으니  
연락주세요.

### 리프팅/ 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 리프팅 라인 ★ 부분 지방분해 라인  
[4회 \$999] [8회 \$999]



탈모 치질 감작성 당뇨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  
7~25lbs

- 손가락
- 발가락
- 마디관절

류마티스 관절통증  
퇴행성 관절통증  
손톱 발톱 질환

“만성두통, 양쪽 어깨 통증, 뒷목 땀기고 귀울림(이명), 어지럽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가슴이 답답하고, 속이 메스꺼리고, 꿈이 많고 깊은 잠을 못 자고, 한쪽 얼굴이 감각이 없거나  
눈과 입 주위에 경련, 손과 팔이 저릿저릿하고 시큰거리는 마비증, 턱관절 장애 T.M.J.”

### 교통사고 전문병원

-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알러지, 콧물, 코막힘, 눈가려움증, 천식
- 서해부 통증(사타구니)
- 치아 미백 파우더(3달분 \$60)
- 미용침, 아토피, 각종 피부병
- 수족이 얼음처럼 냉한 분
- 발뒤꿈치 통증, 다리 쥐어움
- 뒤통리 통증(협통)
- 10일 이상 자궁출혈
- 요실금, 전립선 비대증
- 자궁이 내려앉은 증상

- 치질(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
- 자궁 물혹이나 통증(월경통, 하혈)
- 오심, 구역, 좌골 신경통, 요통, 류마티스 관절염
- 안면 신경마비, 중풍, 심근경색, 지독한 어지럼증
- 각종 위장병, 불면증, 알콜리쉬, 불안조증, 식은땀
- 감상선, 당뇨병, 여드름
- 다리가 저리고 땀고, 무릎통증
- 골프 엘보우, 테니스 엘보우
- 빨간 코, 붉은 얼굴, 머리 속 두드러기
- 자궁 입구 근처에 물혹, 근종 수술 안해도
- 몸 전체 중에 밖으로 나온 혹이나 지방종
- 구연산 캡슐 취급

매끼는 숙면제거약  
먹으면서 체중 줄고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한달분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 영선한의원

영업시간  
월~금, 10시 ~ 5시  
토 10시 ~ 2시

Tel. 213 380 7800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7와 아드모아)



# 故 정두언 의원 담임목사, 지난주에도 “사랑합니다” 하며 위로해주었는데...

## 높은뜻광성교회 이장호 목사 SNS에 회고글

높은뜻광성교회 이장호 목사가 최근 별세한 故 정두언 전 국회의원에 대한 글을 19일 자신의 SNS에 올렸다. 고인은 생전 이 교회 교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는 “고 정두언 안수집사, 작년부터 우리 교회 등록교인이 되셨다. 꽤 어려운 예배 출석하다 결심하셨다. 등록심방도 받으셨다”며 “등록한지 얼마 되지 않아 결혼식을 주례해달라고 부탁해오셨다. 혼인신고를 마친 상태였지만 아내 되신 분은 초혼인이라 조촐하게 결혼식을 갖고 싶다 하셨다”고 했다.

그는 “양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무엇보다 전처에게서 낳은 따님과 사위도 참석했다. 따뜻한 결혼식이었다”며 “그후에도 sns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격려했다”고 했다.

이 목사는 “정치적 입장이 달라도 토론하며 더 나은 선을 향해 걸어가려고 했던 ‘합리적 보수주의자’, ‘건강한 보수의 대변인’ 언젠가

좋은 기회가 주어지면 참 좋겠다 싶었다”면서 “지난 주일 예배 후에도 인사나누며 어깨를 두드려드렸다. ‘사랑합니다.’라고 했다.

그는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 인사가 되고 말았다. 우리 교회를 통해 평안을 찾아가고 있는 줄 알았다. 흐뭇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며 “속보를 접하자마자 그 무엇이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그 고통 중에 함께 해주지 못하고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과 괴로움이 밀려왔다”고 했다.

끝으로 이 목사는 “나는 영혼을 안내하는 담임목사인데...”라며 고인의 입관예배 설교의 성경 본문을 아래와 같이 남겼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이장호 목사 ©높은뜻광성교회 홈페이지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요 6:35-37)

그러면서 “고인이 직접 부른 CD 음반 ‘당신은 아름다워요’를 듣는다. 당신도 아름답습니다.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길 기도합니다”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 의원, 기자 등 수십 명 부상... ‘친중파 소행’ 의심 홍콩 ‘송환법’ 반대 시위자들 상대로 ‘테러’ 발생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대한 대규모 반대집회가 열린 지난 21일 홍콩에서 반중시위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반정부 세력이나 혁명 운동을 탄압하는, 이른바 ‘백색 테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2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홍콩 위안관전철역에서 송환법 반대 시위대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 발생해 수십명이 부상을 당했다.

보도에 따르면, 흰 상의에 마스크를 착용한 수 백명의 남성들이 이날 밤 10시 30분 경 위안관 역사에 들이닥쳐 쇠파대기와 각목을 휘두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주로 검은 옷을 입은 송환법 반대 시위자들을 대상으로 폭력을 행사했으며, 이번 테러로 린핑팅 입법회 의원과 여성 기자 등 45명 이상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이 사건을 송환법 반대 시위에 불만을 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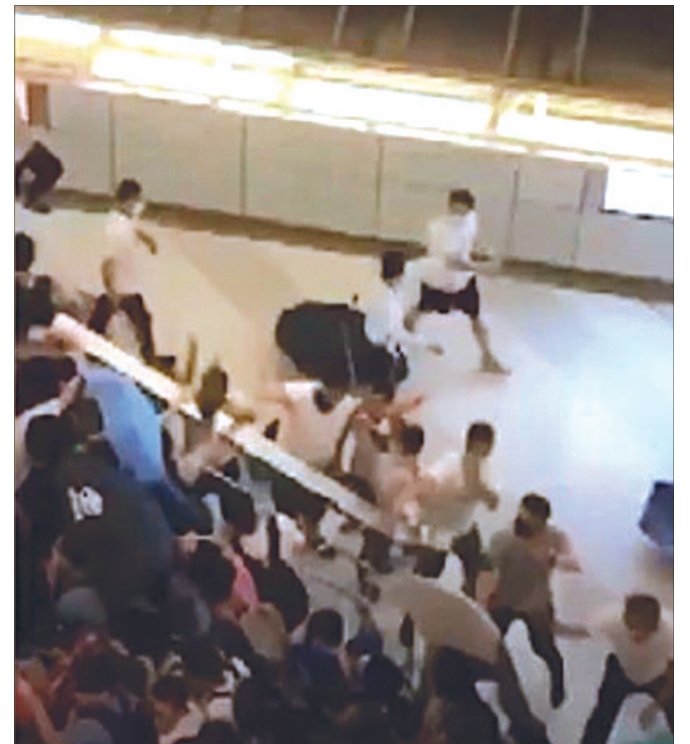
은 친중파의 소행으로 보았고, SCMP는 이들이 폭력조직 삼합회 조직원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21일 송환법 반대집회에는 43만 명(경찰 추산 14만 명)이 참여했으며, 일부는 중앙 인민정부 홍콩 주재 연락관공실에 붙은 중국 중앙정부의 상징인 붉은 휘장에 검은 페인트를 뿌리고 날계란을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송환법 반대 시위의 ‘반중국’ 분위기가 더욱 격해지면서 침묵하던 친중국 진영도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에는 송환법 반대 시위에 맞서 공권력을 지지하고 질서의 회복을 촉구하는 대규모 친중파 집회가 홍콩 도시에서 열리기도 했다.

SCMP는 “송환법 반대 시위의 정국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은 대립과 갈등이 홍콩의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강혜진 기자



흰 옷을 입은 남성들이 시위대를 공격하고 있다. ©SBS 보도 화면 캡처

# 이재서 총장, ‘총신 사태’ 수습에 “화합이 우선”

## 총신조사처리위원들과의 면담서 밝혀



총신대 이재서 총장(지구본 바로 앞)이 총신조사처리위원들 및 학교 교직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이 총장 오른쪽이 위원장 고영기 목사. ©김진영 기자

총신대학교 이재서 신임 총장이 학내 사태로 내홍을 겪다 수습 국면으로 접어든 총신대에 대해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는 화합”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23일 오전 예정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신조사처리위원회(위원장 고영기 목사) 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학내 사태 관련자들의) 징계와 관련, ‘모든 구성원들이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에 대해 생각해 봤다)”며 이 같이 말했다.

총신대 사당캠퍼스 내 총장실에서 고영기 목사 등 위원들과 면담한 이 총장은 “(사태와 관련된) 교수와 직원들을 물리적 방법으로 밀어낼 수 없다”며 “(그들과) 함께 공존해야 할 현실이라면, 화합하자는 게 (개인적인) 결론”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일부 학생들은 아직도 마음에 남은 상처로 인해 상당히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장으로서 아울러야 하고, 화합이라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총신대를) 끌고 가야 한

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총장으로서 할 수 있는 건 인사권”이라며 “그래서 이번에 모든 인사에서 (사태와 관련된 이들은) 배재했다. 엄중한 상황에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그러나 1~2년 후에는 (그들 중) 일부라도, 화합을 위해 인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총장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화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총신조사처리위원 위원장 고영기 목사는 “화합을 강조하신 면이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차기 총회장이 되실 김종준 목사님도 총신대 회복에 중점을 두고 계신다”며 “이번(제104회) 총회가 (총신대 회복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님의 의중을 알았으니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지난 103회 총회에서 총신대 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와 처리 문제를 다루기 위해 구성된 총신조사처리위원회는 제104회 총회가 전까지 총신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김진영 기자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성이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7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7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인,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HYUNDAI**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usajyk@gmail.com

### 모 집 과 정

#### 학사과정

- 신학사
- 선교학사
- 기독상담학사
- 기독교육학사

#### 박사과정

- 목회학박사
- 신학박사
- 선교학박사
- 기독상담학철학박사
- 기독교육학박사

#### 석사과정

- 교역학석사
- 신학석사
- 선교학사
- 기독상담학석사
- 기독교육학석사



# “한국-일본, 서로 하나 되어 ‘복음의 통로’ 되어야”

## [인터뷰] 8년 간 일본 선교했던 유기남 선교사

한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는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일으켰다. 당분간 관계 개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과거 약 8년 동안 일본 선교사로 사역했던 유기남 선교사(64)는 “기독교가 화목과 화해의 대사(ambassador)가 되어야 한다”며 “아픔이 자신을 죽이려는 형에서의 미움을 사랑으로 삼겨 위대한 화해의 역사를 이뤄냈듯이, 일본보다 더 많은 복음의 은혜를 받은 한국이 그 은혜를 전해주어 하나 됨의 역사를 열어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복음은 결코 한 민족에 국한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들만의 신으로만 여겼지만, 오늘날 기독교는 세계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토록 로마로 가고자 했을까요?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복음을 심어 세계로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민족적 시각으로 보면 로마는 유대인들을 지배했던, 우리로 말하자면 일본과 비슷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로마를 복음을 위한 통로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역사적 아픔이 있고, 그래서 상처가 깊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용서하셨던 것처럼, 일본을 품어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쓰시는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한국의 역사적 사명이자, 이 땅에 부흥의 은혜를 먼저 허락하신 이유가 아닐까요?”

유 선교사가 세계 선교에 있어 한국과 일본의 협력을 강조하는 건 양국이 가진 강점이 저마다 뚜렷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책 「일본 선교」(Ivp)에서 바로 그와 같은 생각을 전하고 있다.

“일본이 갈구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다. 이 복음을 나누는 일에 한국교회가 기여할 수 있다. 한국교회는 많은 일꾼과 영적·재정적 힘이 있으며, 일본은 고도의 정보 기술과 평신도 선교사 운동의 높은 잠재력을 갖고 있다. 지금은 어느 한 국가나 민족이 세계 선교를 전부 감당하는 시대가 아니다. 세계 모든 교회가 각자 주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해 협력해야만 한다. 서양 교회의 선교 베이스와 노하우, 한국교회의 인력과 헌신, 일본 교회의 평신도 잠재력이 선교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합쳐질 때 커다란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유 선교사에 따르면 일본은 과거 그들이 한국에 저질렀던 잘못을 그들의 국민들에게 잘 가르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일본인들이 한국의 정서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근로정신대, 위안부, 강제징용, 제암리 사건 등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음에도 정작 가해국의 많은 국민들이 이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렇기에 일본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정직하게 대면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하지만 일본으로 하여금 이런 모습을 갖게 할 수 있는 것 역시 우리의 용서와 사랑이라고 했다.

### 복음은 '민족'에만 국한되지 않아 일본 품어 하나님의 선교 도구로 정죄만 해선 일본 바뀌내지 못해 주님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견자

아픔이 형 에서를 향해 그랬던 것처럼, 복음으로 그 마음을 녹여 그들 스스로 죄를 고백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실한 회개이자 한국과 일본이 과



유기남 선교사. 그는 한국과 일본이 세계 선교를 위해 서로 힘을 합쳐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진영 기자

거의 아픔을 딛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첫 단추라고 유 선교사는 강조했다.

“정죄만 해서는 상대를 바뀌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런 길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마음에 두기 싫어 떠나 버린 인간, 그런 죄인들을 위해 아 들까지 내어주셨기에 오늘날 우리가 그 분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닙니까? 이제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복음의 불모지인 그곳에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그런 참된 용서와 사랑으로 일본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기남 선교사는 1955년 태어난 그는 1974년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후 1980년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어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를 졸업하고 2년간 서울 영동교회 부교역자로 있었다. 1986년 GMTC 훈련을 시작으로, 1987년 상가포르 ACTI 훈련, OMF 본부 오리엔테이션을 거쳐 일본 선교사(1988~1996)로 사역했다. 귀국 후 5년 간 한국 OMF 본국 대표를 맡기도 했다. 2009년 미국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에서 선교학 박사학위(D.Min. GM)를 받았다. 현재 알타이선교회(ACC) 대표로 섬기고 있다.

김진영 기자

# “북한 정권에는 종교가 가장 큰 위협”



지난 2016년 6월, 저서 《잊지 않았다(Not forgotten)》 출간하고 기자회견을 가진 케네스 배 선교사.

미 국무부가 주최한 '제2회 종교 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에 참석한 케네스 배 선교사가 자신이 북한 역류 중 경험한 종교자유의 실태를 고발했다고 미국의소리(VOA)가 19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배 선교사는 18일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비롯해 같은 날 '윤리와종교자유

위원회'가 워싱턴 D.C에서 북한의 종교자유를 주제로 개최한 행사에도 참석해 “북한 정권에는 종교가 가장 큰 위협”이라고 말하며 북한의 종교 탄압을 비판했다.

배 선교사는 이 자리에서 “북한에 억류됐을 당시, 북한 정권이 기독교와 신앙으로 정권을 전복하려했

다는 혐의를 적용했으며, 북한 정부 관리들은 종교가 정권에 대한 가장 위협한 무기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배 선교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 사이에 종교가 퍼져서 성도들이 늘면, 주민들의 절대적 복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관리들은 미

## 케네스 배 선교사 증언 “기독교, 뿌리 뽑으려 해”

국 핵무기보다 종교가 더 두렵다고 말했고, 주민들이 신을 믿기 시작하면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북한은 종교 중에서 특히 기독교에 대해 박해 수준을 넘어 아예 뿌리를 뽑아내려고 한다”면서 “북한 정권은 기독교의 뿌리를 뽑을 목적으로, 주민 한 사람이 기독교인으로 발각되면 그의 부모와 자식들까지 3대 모두를 제거한다”고 말했다고 VOA는 전했다.

한편, 배 선교사는 여행사업을 하던 지난 2012년 11월 단체 관광객들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다가 체포된 후, 2013년 4월 국가전복음모죄로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가 이듬해 11월 석방됐다.

그는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브로커들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고 있다”면서 “지난해 약

60명을 구출한 데 이어 올해는 300명 구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케네스 배 선교사는 지난 6월, ‘북한종교와 신앙의 자유 국제연대’를 창립하고, 북한 내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위한 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 위원회에는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김태훈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대표,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이사장 등 약 2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 주민의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는 것이 지구촌 공동체의 양심과 도덕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다”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심있는 각국 정부, 유엔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북한의 종교와 자유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강혜진 기자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불가능이 없다  
- 이은태 목사를 붙잡아 준 인생 말씀

With God Nothing Is Impossible

# 이른 비의 기적 I 늦은 비의 기적 II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끼니를 걱정했던 이은태 목사가 수백억에 달하는 세 개의 빌딩과 영어 학교, 뉴질랜드 최대 선교센터, 대형 쇼핑몰과 크리스천 캠프장을 운영하기까지 함께하신 하나님의 기적!



이은태 저음 / 1권 232면 / 13,000원



이은태 저음 / 2권 252면 / 13,000원

위클리프를 비롯한 17개 선교 기관들을 섬기고, MEC 장학제도를 신설하여 지난 20여 년간 2,300여 명의 유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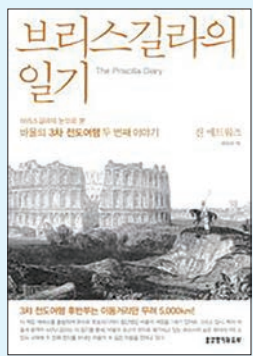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전 세계 청년들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쇠퇴하고 있는 뉴질랜드 땅에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고 계심을 생생히 증거한다.

홈페이지 [www.qumran.co.kr](http://www.qumran.co.kr) 주소 서울특별시 중로구 이화정길6 전화 745-1007  **쿰란출판사**



크리스찬북뉴스 서평 바울의 동역자 관점에서 재구성한 사도행전

‘성경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다면... 진 에드워즈처럼



브리스길라의 일기  
진 에드워즈 | 전의우 역  
생명의말씀사 | 280쪽

진 에드워즈는 성경 역사를 소설 (faction)로 창작한 대표적인 작가이다. 그의 대표작은 예수전도단에서 번역한 <세 왕 이야기>다.

그리고 생명의말씀사에서 <실라의 일기>, <디도의 일기>, <디모데의 일기>, <브리스길라의 일기> 등의 작품을 번역해서 내놓았다. <세 왕 이야기>는 성경 속 인물(다윗, 사울, 압살롬)들의 이야기이고, 실라, 디모데, 디도, 브리스길라도 성경 속 인물이지만,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시공간 속에서 기록된 이야기이다.

<브리스길라의 일기>의 프롤로그는 “방금 디모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다”로 시작한다. 진 에드워즈는 <브리스길라의 일기>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처음 만난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죽은 뒤, 사도 요한이 살아 있는 상황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즉 브리스길라의 관점에서 본 사도 바울의 사역과 전도 사역을 기록한 것이다. 저자의 탁월한 상상력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진 에드워즈는 자기 관점이 아닌 브리스길라의 관점에서 바울과 전도 사역을 조명했다. 브리스길라의 관점은 존재하지 않지만, 진 에드워즈는 브리스길라의 관점을 창조했다. 그래서 성경과 당시 상황을 다른 각도에서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시켰다.

<브리스길라의 일기>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에서 로마 이동까지의 이야기이다. 이 시기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기간이다. 바울이 자기 여행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브리스길라의 이야기로 소개하고 있다.

고린도후서에 대한 이야기가 매우 자세하게 등장한다.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작가가 치밀한 자료 조사와 풍성한 상상력을 동원하여 해소했다.

그리고 로마서와 로마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예루살렘으로 행하는 바울의 자취를 제시한 것이다. 진 에드워즈는 거리와 시간 등을 묘사하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그려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 등의 사진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바울의 동선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드로아, 빌립보, 고린도, 달마디아, 두라기움, 그리고 네아폴리까지 행적을 묘사했다.

진 에드워즈는 사도행전을 바울의 동역자 관점에서 재구성했다. 진 에드워즈의 작품을 보면 깊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다.

<실라의 일기>는 1차 전도여행, <디도의 일기>는 2차 전도여행, <디모데의 일기>는 3차 전도여행 전반부이고, <브리스길라의 일기>는 3차 전도여행 후반부이다. 네 권의 저술이 사도행전과 연관된 세트 저작이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서신의 배경까지 이야기로 구성했다. 그래서 독자가 당시 바울과 함께 여행하는 느낌을 갖도록 유도한다. 즉 1세기 상황으로 독자를 초대하여 동행하면서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볼 수 있도록 구도화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브리스길라의 일기>는 바울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 독자는 진 에드워즈의 <실라의 일기>, <디도의 일기>, <디모데의 일기>, <브리스길라의 일기>까지, 이 네 권 모두를 읽어야 한 권을 다 읽은 것이 된다. 그래야 사도행전과 바울서신을 온전히 그려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진 에드워즈의 작품은 전문적인 신학 저술이 아닌,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 형식이다. 사물을 풍성하게 상상하고 싶은 독자들

에게 매우 유익하다. 여행에서 풀 한 포기에서라도 의미를 찾고 싶은 독자라면, 진 에드워즈의 책을 읽을 때 많은 도움을 얻을 것이다.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은 분들은 진 에드워즈의 상상력을 통해 큰 도움을 얻게 될 것이다.

고경태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광주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을 다룬 <브리스길라의 일기>와 <디모데의 일기>.



바울의 1·2차 전도여행을 다룬 <디도의 일기>와 <실라의 일기>.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여행

성도간의 교제, 단합, 힐링을 위한 시간!

교회 맞춤형 힐링 여행

교회 상황에 맞추어 원하시는 날짜, 인원에게 여행 플랜을 드립니다.



강추!

성도간의 교제의 시간으로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운전하기 어려운 시니어들을 위한 편안한 여행이었습니다. 부담없는 가격으로 즐기는 알찬 여행이었습니다. 기독일보 신문사가 주최하는 여행이라 믿음이 가고 안전한 여행이었습니다. - 여행 다녀오신 분들의 소감

\$99

8월

역사 속 추억 여행

유람선 포함 8월3일(토)당일

에로우헤드 호수와 맥도날드 시작 점을 찾아

L.A.-맥도널드 역사 박물관-러시비페-에로우헤드 호수 유람선-L.A.



Queen Tour Boat

\$190

노동절 연휴 특선

유리 바닥 보트, 섬드라이브 포함



9월 2일(월)당일

카타리나 섬 추억 여행



\$99

9월

대추나무 가을 여행

페달 보트 포함

9월 21일(토)당일

실버우드 레이크 보트타기와 대추 따라가기

실버우드 레이크 [페달 보트 타기]-대추농장[BBQ 파티] & [대추 따기]



추억 만들기 단풍여행

10월

비숍 단풍 \$199

10월 10일(목)

1박2일 Lake Sabrina Mammoth Lakes (숙박) June Lake



천 오백만불 보험가입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하신 주님의 명령을 다시금 부여 받고 선교의 열정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당신!!! 이스라엘 단기선교 기간동안 예배와 기도를 통해 뜨거운 회개와 결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일보와 함께 하는 꿈의 성지순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 예루살렘 단기선교 팀원 모집

믿을 수 있는 현지선교사의 인솔!  
이스라엘 성지를 여행하면서 현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단기선교에 귀하를 초대합니다.

- 일시** 2019년 9월 30일(월) ~ 10월 11일(금) 11박 12일
- 대상** 평신도(장로, 권사, 집사, 일반성도 등)
- 접수마감** 2019년 8월 10일(토) 접수시 \$1,000 디파짓
- 모집인원** 40명 인솔 : 현지선교사 (GMS 소속, 강태윤 선교사)
- 회비** \$2,700 (비행기표, 숙식 포함)  
LA 출발 가격, 타주 출발시 항공료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은행구좌** Bank of America  
NAME :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라우팅넘버 : 121000358 계좌번호 : 325104511374  
Pay to the order: INSTITUTE FOR NEXT GENERATIONS (ING)  
Check 보낼곳 :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 여행취소는 여행 30일 전에 가능하며 그 이후로는 위약금 \$500입니다

여행	상세 일정	교통편 및 식사
9/30일	LA공항 출발	항공, 기내식
10/1일	이스라엘 도착	전용차량, 현지식
10/2일	예루살렘 지역 (감람산, 승천 돔, 주기도문 교회, 벳바게, 파노라마, 눈물 교회, 깃세마네 동산, 기드론 골짜기, 통곡의 벽, 기혼샘, 히스기야 터널, 시온산, 다윗묘, 마가의 다락방, 베데스다 못, 채찍 교회 십자가의 길, 성묘 교회)	전용차량, 현지식
10/3일	사해 지역 (요단강 세레터, 맛사다, 엔게디폭포, 쿨란 공동체(사해 사본 발견지), 사해수영, 여리고, 시험산)	전용차량, 현지식
10/4일	베들레헴 탄생 교회, 우유동굴, 목자의 뜰헤브론, 막벨라 굴, 헤로디움, 드고아 아모스선지자 고향, 헤르툼 동굴	전용차량, 현지식
10/5일	사무엘 묘, 벤엘, 사마리아성, 야곱의 우물, 세겜, 그리심산, 실로 조망	전용차량, 현지식
10/6일	유대광야 요단계곡, 벤산, 텔단, 가이사라 빌립보, 골란고원, 팔복교회, 갈릴리 호수 배타기, 갈릴리 호텔 숙박	전용차량, 현지식
10/7일	오병이어 교회, 베드로 수위권 교회, 가버나움, 가나혼인교회, 나사렛 수태고지 교회, 므깃도, 갈멜산 무흐라카, 지중해 가이사라	전용차량, 현지식
10/8일	에인카렘, 세례요한 고향, 벤세메스, 소렉골짜기, 아세가, 엘라골짜기, 벤구브린, 이돌람굴, 라기스	전용차량, 현지식
10/9일	네게브 남방, 브엘세바, 초대수상 벤구리 온묘, 엔 아브다트, 아브다트, 마크테시 라못 분화구	전용차량, 현지식
10/10일	자유시간, 저녁식사 후 공항 이동	전용차량, 현지식
10/11일	미국 LA 도착	항공, 기내식

**주관 : 기독교일보(사업본부) T.(213)739-0403**  
3020 Wilshire Blvd. #160, Los Angeles, CA 90010  
**후원 : BIZPOST GROUP, 한우리여행사**

